



코스피 2228.66 (-1.10)	코스닥 747.33 (-3.36)
금리 (국채 3년) 1.81 (+0.01)	환율 (USD-달러) 1125.20 (+1.70) (21일)



[뉴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임대소득 과세
02

결국은 혁신... '신형 갤럭시' 전세계 소비자 열광

(갤럭시 S10, 갤럭시 폴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2019'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가 정제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짐이다. 오랜만에 현실화된 스마트폰 혁신에 전세계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관련기사 3, 8면)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2019'를 열고 신형 갤럭시를 공개했다. 오는 2분기께 글로벌에 출시할 예정이다.

◆혁신1. 가격

갤럭시의 혁신은 가격에서부터 시작한다. 갤럭시 S10 출고가는 보급형인 S10e가 89만원, S10은 105만6000원, S10+는 115만5000원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경쟁 모델인 애플 아이폰 Xs 맥스 출고가(150만원)보다 20% 가량 낮은 가격이다. 메모리 용량도 아이폰 Xs 맥스는 64GB, 갤럭시 S10+는 128GB다. S10+ 1TB 모델도 174만9000원으로 더 낮은 가격에 책정됐다. 갤럭시 폴드는 1980달러(약 222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2. 폴더블폰 시대 선도

갤럭시 폴드는 폴더블폰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줬다. 접었다 펴는데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용 환경은 기본이다. 하드웨어적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19를 열고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 사진은 언팩 2019 체험존. /삼성전자

아이폰보다 20% 낮은 가격 폴더블폰 기술·내구성 우세 AI 적극활용 등 혁신성 화제

필요한 부분만 과감한 변화 소비자 요구도 적극 반영

는 더 세밀해진 힌지기술을 이용한 깔끔한 마감과, 기존 스마트폰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도 구현해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경쟁사들도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드 형식을 사용해 내구성 문제가 제기된다. 디스플레이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방식이라 취급이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 구동 능력도 갤럭시 폴드에는 적지 않게 뒤쳐질 전망이다. 최근 샤오미 린빈 총재가 공개한 폴더블폰 시연 영상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접자 화면이 어색하게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혁신3. 인공지능 확대

갤럭시 S10은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활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모델이기도 하다.

프로세서에 탑재된 NPU(신경망처리장치)는 사용자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다. 촬영 장면을 분석해 적합한 채도와 대비, 노출까지도 알아서 조절해준다.

빅스비는 이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설정도 보여준다. 바로 '빅스비 루틴'이다.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사용자 사용 패턴

을 학습하고 배터리와 처리 속도까지 효율화한다.

경쟁사들도 NPU와 인공지능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갤럭시는 인공지능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높다. 수동적으로 음성호출을 해야 반응하는 것이 아닌, 실제 비서와 같이 사용자를 돕는 방식이다.

◆혁신 4. 소비자 우선주의

새로운 갤럭시는 다양한 혁신을 추구했지만, '경계망동'하지는 않았다.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용자를 조율해 혁신으로 이끄는 모습이다.

특히 이어폰 단자를 남겨둔 것에 많은 사용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아이폰 단자는 스마트폰 두께에 큰 걸림돌,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버드를 출시했음에도 갤럭시는 이어폰 단자를 남겨뒀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웨어러블 기기 활용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기능으로 해석된다.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 등이 짧은 유지 시간으로 충전에 불편을 겪는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 것.

'슈퍼스테디' 기능은 동영상 촬영이 높아진 데 따른 배려다. 전문 장비 없이도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 훨씬 질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교육자로 한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학교로 현재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학이다. /연합뉴스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하이닉스, 용인에 요청

원삼면 일대 448만㎡ 규모
이천·청주와 삼각 클러스터



용인시 원삼면 일대 /연합뉴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으로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용인일반산업단지는 20일 용인시에 이같은 내용으로 투자의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입지를 희망하는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약 135만평) 자리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공장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FAB) 4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국내외 50개 이상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하게 된다.

또 SK하이닉스는 국내외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창출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10년간 총 1조 2200억원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상생펀드 3000억원, 인공지능 기반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 6380억원, 공동 R&D 2800억원 등이다.

아울러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사업장에도 10년간 각각 20조원, 35조원 규모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천과 청주, 용인 삼각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화하기 위함이다. 이미 청주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토지구입양해각서 분양계약을 다음달 체결키로 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입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유리할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산업들과의 연계 및 물류 비용 절감 등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단, 지역균등발전을 무시한다면 비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 구미와 충청남도 등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규제 해소도 관건이다. 용인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를 적용받는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별 물량' 형태로 공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김재용 기자

“요구만 하는 당정, 反기업정서 먼저 풀어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명분만 추진하면 실리 손해
기업 ‘정책 활성화’ 큰 부담”



지난달 15일 최태원 SK회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쌓인 '반기업 정서'와 '선입견'을 풀어 재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업은 정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당정은) 기업의 실리를 고려하면서 명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또 “당정 요구를 다 들어주면 기업에게 경제까지 살리라는 것은 학생에게 모든 교과목을 잘하라는 얘기”라며 “명분만 추진하면 실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의 재계를 향한 애매한 규제 해소와 정책 활성을 위한 요구는 줄을 잇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사

업 1호로 국회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규제를 풀어준다며 충전소 설치를 현대자동차에 맡겼지만, 국내 수소차 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893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며 장기적 투자를 하는 셈이다. 충전소 부지 임대비용 부담 여부도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 현대차 측의 부담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가 깊어져야 할 정책 활성화 총대를 기업에 매게 하는 경우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달 이재

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흥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삼성 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이 부족해 연간 2000~1만명을 육성한다는 데, 10배 정도 늘려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부회장을 “기대와 주목에 상응하게 잘해주길 바란다”며 압박 발언을 하기도 했다.

꼭 막힌 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실시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앞

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전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사회적 기업 관련 법에 대해) 거의 2년 전에 (대통령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런데 (입법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언급을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윤창현 교수는 “당정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점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반기업 정서는 유지하면서 ‘공정 경제’를 말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구만 하고 기업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면 전시행정”이라며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화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란 게 윤 교수의 조언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임대소득 과세

**임대현황 파악 주택 22.8% 불과
역전세난서 임차인·취약계층 보호
국토부, 상반기중 입법개정 추진**



정부가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도심 전경. /메트로DB

정부가 전·월세 거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에 있던 주택 임대수입을 양지로 끌어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장 충격과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매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임대주택 중 4분의 1에도 못미친 셈이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제약이 많다보니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 실거래 신고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삼성화재, 하반기 車보험료 인상 유력

1월 인상분에 정비원가 반영못해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연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자동차보험료를 올렸지만 정비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김일평 삼성화재 상무(자동차보험전략팀장)는 지난 20일 진행된 '2018년 결산 실적 경영설명회(IR)'에서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정비원가 인상요인을 1.1%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손해율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며 “나머지 정비원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당시 정비원가 인상분은 3% 내외였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인상엔

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해 3분기 개최한 IR에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삼성화재는 개인용 차량 기준 자동차보험료를 3.0% 올렸다.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분기 실적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상무는 “다른 추가 요인에 대한 인상분도 검토하겠다”며 “1분기 실적이 나온 후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다른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자동차보험료 인상 당시 손보업계는 폭염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했다며 5~8%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을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3~4% 선에서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2년 만의 인상이었다. /김희주 기자 hj89@

현대로템, 방글라데시서 906억 기관차 수주

**디젤전기기관차 20량 추가 낙찰
내년 생산돌입 2021년까지 납품**

현대로템이 지난해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수주 소식을 전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2월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방글라데시에서 디젤전기기관차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20일 방글라데시 철도청으로부터 약 8035만달러(약 906억원) 규모의 디젤전기기관차 20량을 낙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디젤전기기관차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구동시켜 생성된 전기를 모터로 보내 추진력을 얻는 기관차로, 전차선이 없는 선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5월과 10월 방글라



현대로템이 납품한 방글라데시 디젤전기기관차.

데시에서 수주한 디젤전기기관차 80량에 이어 20량을 추가 수주함으로써 방글라데시 디젤전기기관차 점유율 1위(33.8%)를 유지했다. 열차는 오는 2020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생산에 돌입해 2021년까지 전 열차 편성을 납품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주가 그간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쌓은 신뢰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DCF)으로 구성된 금융지원 및 수출입은행 다카사무소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주한 디젤전기기관차는 여객·화물열차를 수송할 예정으로 선로 폭이 좁은 협궤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제원은 길이 약 17m, 너비 약 2.7m, 설계 최고 속도 시속 100cm, 2000마력이다. 기존 방글라데시에 납품한 디젤전기기관차와는 달리 운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현대로템이 방글라데시에서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그간의 성실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통해 쌓은 높은 신뢰로 이룬 결과”라며 “향후 성공적인 차량 납품을 통해 방글라데시에서 추가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민 기자 ysw@

최저임금 인상 후 알바생 45% ‘임금체불’

평균급여 87만원 중 35만원 체불
디자인 업종 76%, 미디어 68%



소득수준이 낮은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비율이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0일~1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 급여는 평균 87만원이었고, 체불액은 35만원으로 집계돼 받지 못한 임금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임금 체불 비율은 최저임금이 본격 인

상된 2018년을 기준으로 이전보다 높아졌다. 2018년 이전과 이후 근무자료를 나누어 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전의 임금체불 비율(44.7%)보다 ▲2018년 이후 임금체불 비율(49.7%)이 5.0%포인트 높아졌다. /한용수 기자 hys@

내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10개 숫자 중 앞 4자리 ‘산란일자’
4월25일 ‘선별포장 유통제’ 시행

정부는 21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이달 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 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

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달걀 껍데기 표시 개정안
2월 23일 시행

1004 AB38E 2
산란일자

사육환경 번호
방사사육(1)
축사내방사(2)
개선된 케이지(3)
기존 케이지(4)

생산농장 고유번호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확인 가능

연말뉴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세홍희 기자 grandtrust@

세계 첫 초음파 지문 인식... 애플 앞마당서 선전포고

SAMSUNG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7.3형 디스플레이·두께 최소화
접거나 펴도 앱 연결성 뛰어나

갤럭시S10

라인업 4개로 확장... 선택권 넓혀
AI가 성능 최적화·사진 촬영 도움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접었다 펴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S10'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혁신 회의론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갤럭시 언팩 2019' 의미를 이같이 소개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혁신을 주도하고 나섰다.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통해서다. 갤럭시S10은 인공지능으로 더 업그레이드됐다.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드와 다기능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 액티브도 함께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2019를 개최했다. 언팩은 2009년부터 이어져온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공개행사로, IM부문 시장이 직접 제품을 소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올해에는 경쟁사인 애플 본사가 있는 지역을 장소로 선택해 더 큰 기대를 모았다.

◆갤럭시 폴드, 모바일 새 시대 열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모델은 단연 갤럭시 폴드다. 지난 해 테크포럼2018에서 선보인 폴더블 스마트폰을 양산한 제품이다. 오는 2분기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갤럭시 폴드는 7.3형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 소형 태블릿 크기다. 접으면 4.6형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2개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접는 제품임에도 두께는 최소화했다. 새로 개발한 복합 폴리머 소재 덕분이다. 기존 스마트폰보다 50% 가량 얇게 만들어, 접은 후에도 일반 스마트폰 수준 두께를 유지한다. 실제 공개된 갤럭시 폴드는 자연스럽게 접히는 힌지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CES2019에서 공개된 중국

로울 '플렉스파이'와 달리, 펴고 접힌 상태 마감에 맡겼다. 정교한 힌지를 개발해 늘 평평하고 얇은 형태를 유지케 했다. 삼성전자가 설명했다.

특히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활용성은 업계와 소비자들 열광을 이끌어내기 충분했다. 제품을 접거나 펴도 애플리케이션을 끊김없이 재생해주는 '앱 연결 사용성' 덕분이다. 예컨대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지도를 확인하다가 제품을 펼치면, 자연스럽게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지도 앱을 보여준다.

'멀티 액티브 윈도우'는 폴더블폰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충분했다. 내부 디스플레이를 3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데다, 여러개 애플리케이션을 멈추지 않고 동작할 수 있다. 동영상을 보며 검색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문인식센서는 측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배치해 새로운 폼팩터, 폴더블폰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일반 스마트폰과 잡는 방식이 다른 만큼,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다.

배터리는 4380mAh 대용량을 장착했다. 프로세서는 지역에 따라 7nm 64 bit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다. 램은 12GB에 내장메모리는 512GB다. 카메라는 커버에 1000만화소, 후면에 1600만화소와 1200만화소 듀얼 픽셀 및 망원, 전면에는 1000만화소와 800만화소 등 총 6개다.

◆주인공은 갤럭시 S10

그러나 이번 언팩 주인공은 갤럭시 S10이었다. 갤럭시 출시 10주년을 기념하는 열번째 모델로, 기존 폼팩터 스마트폰

도 혁신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갤럭시 S10은 라인업을 4개로 크게 확대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갤럭시S10+와 일반 갤럭시S10, 여기에 더 작은 컴팩트 모델 갤럭시S10e를 추가했다. 5G 통신이 가능한 갤럭시S10 5G도 세계 최초로 내놨다.

플래그십에서는 처음 장착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도 강점이다. 베젤을 최소화하고 전면카메라를 우측 상단 디스플레이에 녹여내 개방성을 극대화했다.

다이나믹 AMOLED는 최대밝기 1200니트에 명암비 200만:1로 선명한 화질을 구현해낸다. 다이나믹 톤 매핑으로 스마트폰 최초 'HDR10+' 인증도 받았다. 독일 VDE사에서는 모바일 컬러 볼륨 100%로 인정받았다. 블루라이트 파장을 획기적으로 낮춰 독일 'TUV 라인랜드'에 '눈이 편안한 디스플레이'로도 선정됐다.

지문 인식 방법도 화면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가능해졌다. 세계최초로 초음파 지문 스캐너를 내장하면서다. 덕분에 후면 디자인을 더 깔끔하게 구현했다.

무선 배터리 공유는 웨어러블기기 접근성을 더 높여준다. 후면에서 무선 충전을 해주는 기능으로, 갤럭시 버드뿐 아니라 Qi 규격 기기라면 무엇이든 전기를 공유해줄 수 있다.

인공지능 활용도 훨씬 광범위해졌다. 성

능 최적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별 사용 패턴을 학습해 배터리 소모와 속도, 온도까지 최적화해준다. 실행 예측 알고리즘으로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속도를 높여주는 기능도 있다. '빅스비 루틴'은 최적화된 스마트폰 설정을 추천해준다. 사진도 인공지능이 찍어준다. 촬영 장면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채도와 노출 등을 조절해주는 '장면별 최적 촬영'이 그것이다. 화면에 따라 구도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프로세서에 장착된 'NPU'를 통해 가능했다.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슈퍼 스테디' 기능도 새로운 스마트폰의 미래다. 카메라는 후면에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카메라와 초광각 123도를 지원하는 1600만화소 카메라, 전면에 1000만화소 듀얼 픽셀 제품이 들어간다.

배터리는 3100~4500mAh다. 지역과 사업자에 따라 7~8nm 64bit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사용된다. 램은 6~12GB, 내장메모리는 128GB에서 1TB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이달 25일 사전예약... 정식출시는 3월 8일

'갤S10' 출시 앞두고 분주한 이통사

삼성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시리즈 출시를 코앞에 두고 이동통신 3사도 분주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전국 대리점과 공식 인터넷 몰에서 갤럭시S10과 S10e, S10플러스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식 출시일은 내달 8일이고, 사전예약 개통은 3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갤럭시 S10의 출고가는 128기가바이트(GB) 기준 105만6000원, 512GB 기준 129만8000원이다. S10e는 128GB 단일 기종으로 89만9800원, S10플러스의 출고가는 128GB 기준 115만5000원, 512GB 기준 139만7000원이다.

SK텔레콤에서 'SKT 하나카드 T제로'로 전년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24개월간 통신비 최대 33만6000원, '롯데 Tello 카드'를 이용하면 24개월간 최대 38만4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T갤럭시클럽S10'을 활용하면 구매 12개월 뒤 사용

하던 제품을 반납 후 다음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할 때 잔여할부금의 최대 반값을 면제받을 수 있다.

KT는 단말기 교체 프로그램 '슈퍼찬스'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갤럭시S10 LTE 단말을 사용하다가 '갤럭시S10 5G' 단말로 변경 후 기존 제품을 반납하면 출고가 전액을 보상한다. 또 기기 반납 시 출고가의 최대 40%를 보상받는 '슈퍼체인지'와 계약 기간 만료 후 단말을 반납하는 렌탈 서비스인 '슈퍼렌탈'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출고가의 60%만 24개월간 나누어 내는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24개월 후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할 때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출고가 40%를 보상한다. U+Family 하나카드로 자음이체를 통해 통신요금을 납부하면, 최종 납부금액에서 최대 월 2만5000원씩 2년간 60만원을 청구 할인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롯데칠성음료

우도 블랑로셰 카페 —
이제 집 앞에서 만나라

Cantata
ORIGINAL BLEND COFFEE
X
BLANC ROCHER
망콩크림라떼
by 우도블랑로셰

BLANC ROCHER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783

우도 블랑로셰 카페는 칸타타의 지역상생 캠페인이 발굴한 첫 번째 카페입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3인 경합 수협회장 오늘 선거... 과반 얻어야 당선

11시 송파구 수협중앙회서 투표
김진태 “소통·혁신통해 성장”
임준택 “탁월한 경제 리더십”
임추성 “조합 중앙회 조직개혁”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22일 치러진다. 지난해 회장연임과 관련한 수협법 개정안이 무산되며 뒤늦게 나선 3명의 후보자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투표자수의 과반을 얻어야 차기 회장에 당선된다. 만약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놓고 2차투표를 해서 다득표한 후보가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개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회가 위탁 받아 주관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투표 당일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선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며 “차기 수협중앙회장선거에 대해 지구별·업종별·지역별 구도 등에

따라 선거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조합장들은 공약 사항을 주의 깊게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회장 후보는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62),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62),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61) 등 3명이다.

김진태 후보(현 중앙수산조정위원, 15·16·17대 부안수협조합장)는 공약사항으로 ▲소통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수협 조성 ▲무분별한 바다생태계 파괴에 적극 대처 ▲복지 회원조합의 기틀 마련 ▲중앙회 역할 강화 ▲중앙회 혁신을 내걸었다.

임준택 후보(현 대진수산 대표, 부산농

구협회 회장, 서구장학회 상임이사)의 공약은 ▲탁월한 경제사업 리더십 ▲공적 자금 임기 내 완전 해소에 필수적인 정관계 네트워크 ▲초일류 협동조합으로 도약 위한 최고의 인적자원 육성 역량이다.

임추성 후보(현 해수부 어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는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회 조직개혁 ▲정부와의 협력 강화 ▲노량진수산시장 등 자회사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수협법 개정안이 막판에 무산되면서 지난달이 돼서야 선거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산됐다”며 “김임권 현 회장이 연임할 것으로 예상해 후보자 3명이 표밭을 다져놓지 못한 측면도 있어 결과를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동안 연임제한이 없었던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4대 김인권 회장부터 비상임 4년 단임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중앙회장은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지만 업무 진행 권한이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3명 모두 경쟁해 누가 당선될지는 개표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며 “투표로 선출된 차기 수협중앙회장은 내달 말쯤 취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인 조합장이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자는 수협중앙회장 1명과 회원명부에 올라있는 전국의 업종 지구별 수협조합장 91명이다. 당선인은 수협임원선거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역대 수협중앙회장〉

대	회장	재임기간
1대	윤춘근	1962.04.01~1963.02.01
2대	김항진	1963.03.06~1964.03.31
3대	김재식	1964.04.02~1966.07.12
4대	노명우	1966.08.09~1968.07.04
5대	박상길	1968.07.22~1971.07.21
6대	김덕업	1971.07.22~1973.09.25
7대	장덕희	1973.10.10~1976.05.10
8-9대	남문희	1976.05.12~1979.09.25
10대	홍종문	1979.09.26~1980.07.12
11대	이동용	1980.07.12~1983.07.11
12대	이은수	1983.07.12~1986.07.11
13대	박희재	1986.07.12~1990.04.19
14대	홍종문	1990.04.20~1990.07.23
15-16대	이방호	1990.08.21~1995.04.24
17-18대	박종식	1995.05.22~2000.12.29
19대	정상욱	2001.01.27~2001.06.12
20대	차석홍	2001.07.04~2004.05.25
21대	박종식	2004.06.24~2006.12.27
22-23대	이종구	2007.01.25~2015.3.24
24대	김임권	2015.03.25~현재

/자료=수협중앙회

KB금융 노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철회

후보자 이행상충 문제로 ‘물거품’

금융권 노동이사제 논란에 불을 지폈던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엔 후보자의 이행상충 문제가 불거지면서 3번째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백승현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백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은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다. 월평균 200만원 미만, 건수는 월평균 2건 미만으로 구상권 관련 소액 사건을 수임했다.

법률상 해당 금융회사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KB노조는 수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후보자 결격 시비가 등을 감안해 후보 추천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투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지배구조개선 활동은 법적 요건이나 규정,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B금융 노조는 앞서 2017, 2018년에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바 있으며, 모두 표결에서 부결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출 편의점 ‘Loan 25’ 브랜드 런칭 자영업자들 마이너스통장 대출 특판

케이에스넷 자회사 케이에스에이엔피



국내 선도 VAN사업자인 케이에스넷의 자회사인 케이에스에이엔피가 중금리 대출편의점 ‘론(Loan)25’ 브랜드를 런칭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스에이엔피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기반의 핀테크 사업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 물품대금서비스 등을 통해 약 10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기업이다.

케이에스에이엔피는 그동안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편의점 Loan25 브랜드를 런칭하며 건전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선보였다.

기준에 직장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상품출시에 관심이 쏠린다.

단기 유동성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케이에스에이엔피는 대부업 등록을 신고한 후 금용고객을 위한 건전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다는 포부 또한 밝혔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Loan25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8%에서 최고 연 12%의 중금리로, 저축은행보다도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임금인상 갈등에 파업위기

노조, 성명서로 이달말 파업 예고

대형사 외 회원사 회비 부담 우려



저축은행중앙회와 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가 중앙회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이달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당기순이익이 약 1조5000억원에 달해 노조의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 요구를 사측이 전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체 수익의 0.08%수준에 불과한 성과 배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노조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회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회원사의 회비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높은 당기순이

익은 대부분 소수 대형사의 실적이 반영된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대부분이 중소 저축은행인 상황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저축은행에게는 회비 인상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 전체 순익 중 약 40%는 SBI·웰컴·OK·한국투자·유진 등 상위 5개 저축은행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이 증가하면 중앙회 직원의 임금도 당연히 올라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로 업계의 수익이 떨어지면 중앙회 직원의 임금도 삭감될 수 있다는 발미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저축은행중앙회로서는 선불리 입장을 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전국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중앙회 통합전산을 이용함에 따라 이번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거래고객의 불편과 신뢰 추락 등 유무형의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을 이용하는 회원사는 총 79개사 중 67개사로 전체 저축은행 중 약 84%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저축은행중앙회의 노조원 또한 직원이므로 실제 파업을 통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노조 측도 파업을 원하지 않고 있어 노사간의 입장을 최대한 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하는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의 파업으로 회원사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 책임 또한 직원인 그들이 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의 공식 성명은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KEB하나은행, 국내은행 최초 블록체인 기술 전파

KEB하나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기술 개발자 및 대학생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내은행 최초 블록체인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빅3블록체인 컨소시엄에(R3·EEA·Hyperledger) 모두 가입하는 등 블록체인 분야 선도은행인 KEB하나은행이 국내외 유력 컨소시엄의 기술을 소개하고 전파하고자 마련한 열린 세미나다.

세미나는 기업용 블록체인을 주제로

▲KEB하나은행이 바라본 블록체인 기술 ▲R3 Corda 소개 및 적용사례 ▲EEA의 블록체인 기술소개 ▲하이퍼레저(Hyperledger) 활용사례 등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각 빅3 컨소시엄 소속 전·현직 대표, 이사 등이 직접 강사로 참여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권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 및 대학생들과 꾸준한 관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이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내은행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이크 포 인디아' 캠페인을 따른 현지형 가전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삼성, 특화제품으로 인도 본격공략

포르투갈 '삼성포럼 2019'

서남아시아 지역 거래선 초청
뮤직TV·전자레인지 등 공개

삼성전자가 인도 현지 환경에 꼭 맞는 제품을 출시하고 가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19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포럼 2019'에서 인도 지역 특화 제품을 선보였다. 서남아시아 지역 거래선들을 초청했다.

이번 제품은 자사 제품을 통해 인도 소비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지로 시작한 '메이크포인디아' 캠페인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뮤직 TV'가 대표적이다. 여러 명이 음악을 같이 듣기를 즐기는 인도 소비자를

고려한 기능으로, 음악을 감상할 때 화면 전체를 오디오 UI로 바꿔준다. 음악 장르에 따라 모드와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오는 4월 2018년형 스마트TV부터 적용된다.

'리모트 액세스' 기능은 PC 보급률이 낮다는 데 착안해 제품에 포함기로 했다. TV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근처에 있는 기기를 연결해 가상PC로 변신한다.

전자레인지도 인도 음식 250개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지난해부터는 현지에서 자주 먹는 향신료나 말린 과일을 만들어주는 '마살라&선드라이' 기능도 추가했다. 정전이 잦은 현지 전력 사정을 고려한 태양광 냉장고도 인도 소비자를 위한 삼성전자의 현지 모델이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자연주제 올레드 TV CF 공개

LG전자가 광활한 자연을 주제로한 새로운 올레드TV CF를 공개한다. LG전자는 22일 'LG 올레드 TV, 지구의 한 조각이 되다' CF를 온에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난 광고와 마찬가지로 자연 풍경을 활용해 올레드TV 성능을 보여준다. 50억년간 만들어진 지구와 대자연은 올레드TV로 담아낸다는 콘셉트다. 영상은 벨기에 탐험가인 시베 반히 시선을 따라 펼쳐진다. ▲아르헨티나 로스 글레시아레스 국립공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나미비아 샌드위치 허버 ▲중국 두산즈 계곡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전세계 21개 지역을 촬영했다.

/LG전자

LG전자가 광활한 자연을 주제로한 새로운 올레드TV CF를 공개한다. LG전자는 22일 'LG 올레드 TV, 지구의 한 조각이 되다' CF를 온에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난 광고와 마찬가지로 자연 풍경을 활용해 올레드TV 성능을 보여준다. 50억년간 만들어진 지구와 대자연은 올레드TV로 담아낸다는 콘셉트다. 영상은 벨기에 탐험가인 시베 반히 시선을 따라 펼쳐진다. ▲아르헨티나 로스 글레시아레스 국립공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나미비아 샌드위치 허버 ▲중국 두산즈 계곡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전세계 21개 지역을 촬영했다.

SK텔레콤, 티브로드 품는다

케이블TV 인수 추진 속도
최대주주 태광산업과 MOU

유료방송 점유율 23.8% '3위'
CMB 등 추가인수 가능성 거론

SK텔레콤이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 인수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절차, 일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제공시킬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국내의 재무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 인허가가 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료되면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티브로드는 지난해 6월 말 약 314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 업계 2위 사업자다. 티브로드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차입법인으로 결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

다. 동일 기준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는 454만명으로, 가입자를 합산하면 약 76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이들의 합산 가입자인 781만명을 바짝 따라잡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해도 유료방송 합산 시장 점유율은 23.8%에 그쳐 3위에 머무른다. 같은 기준으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산 점유율은 24.4%다. SK텔레콤의 현대HCN, CMB 등의 추가인수 가능성이 업계에서 거론되는 이유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축"이라며 "IPTV와 케이블TV의 강점을 고도화하고, 두 매체간 상생발전의 앞장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넥슨, 매각 초읽기... 넷마블 유력후보 부상

넷마블 인수뎀 '1위 초대형 게임사'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새 주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인수합병 규모, 게임 산업의 구조 변화 등에서 과장이 예상된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 매각 주관사인 도이치증권은 이날 매각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예비입찰은 본 입찰 전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를 판단하기 위해 입찰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희망자를 등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 후보자를 상대로 예비 실사를 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가격이나 인수 조건, 재무·사업 역량 등을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는 자신과 부인 유정현 NXC 감사, 김 대표 개인회사인 와이즈키즈가 보유한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놓았다. NXC는 일본 상장법인 넥슨의 지주사로, 넥슨 지분 47.98%를 보유하고 있다. 매물로 나온 넥슨 지주회사 NXC의 넥슨 지분



김정주 NXC 대표.

47.98%에 대한 가치는 6조~7조원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넥슨이 상장된 일본 증시의 공개 매수 조항을 고려하면, 최대 13조원의 인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매각설 당시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에 있다"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돈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내에서 인수 의사가 확실시 되는 곳은 넷마블이다.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텐센트가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에 참여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이 넥슨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1위 초대형 게임사가 탄생하게 된다. 문제는 해외자본이다. 인수 컨소시엄에 중국 텐센트 등이 포함되면, 텐센트가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인수전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넷마블 측은 "예비입찰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카카오도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카카오 배재현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4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당시 "비용투자는 지난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한 바 있다. 넥슨 인수 철학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넷마블, 카카오 외에 해외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 가능성이 제기돼 넥슨을 둘러싼 경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나인 기자

KT, 5G 경쟁력 강화... 광인프라 도입

고용량 데이터 안정적·고속 처리

KT는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해 '5G 광인프라'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KT가 새롭게 도입한 '5G 멀티플렉서'와 '25G 광모듈'이 핵심이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5G 기지국에서 DU(디지털 유닛) 집중국사까지의 유선 전송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광케이블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광케이블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 망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KT가 도입한 5G MUX는 초고속인터넷, 3G, LTE, 5G 등의 서비스를 단일 회선으로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광 신호를 결합하고 분리하는 장비다. 이 장비를 활용하면, 기존 망에 5G MUX를 붙여

추가적인 광케이블 설치 없이 설치된 인프라에 전원 플러그를 꽂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기존 광케이블을 활용하면서도 망 구조의 변경이 필요 없고, 광케이블이 깔려 있는 곳에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5G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의 광케이블상에서 여러개의 빛 파장을 동시에 전송하는 'LWDM 방식'의 이동통신용 25G 광모듈'을 개발하고 도입했다. 광모듈은 광인프라로의 연결을 위한 광전신호전환장치다. KT는 기존에 데이터센터용으로 사용되던 LWDM 방식의 광모듈을 '이동통신용 25G 광모듈'로 개발했다. LWDM방식의 25G 광모듈은 넓은 파장을 이용해 고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LG U+, MWC서 5G B2B서비스 시연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CCTV
자율주행 HD맵서비스 확인까지
글로벌 업체제휴·사업기회 모색

LG유플러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 참가해 5G 기반 전략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MWC에서 소개하는 5G B2B 서비스는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원격제어 ▲지능형CCTV ▲저지연영상전송 솔루션 ▲자율주행 HD 맵 등이다.

LG유플러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한국 평택 생산 공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5G 스마트 팩토리 원격제어 서비스를 시연한다.

물류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주



직원들이 스마트팩토리 시연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행 영상은 실시간으로 MWC 현지 전시관 내 스크린에 전송된다. 또 각종 센서로 작업환경을 감지, 원격으로 공장 내 온도, 습도, 가스 등의 상태 모니터링 후 스페인 현지에 이상 알림을 보낸다.

지능형CCTV에는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이 적용돼 MWC 현지 직원의 안전도

착용 여부를 즉각 검출해 스크린에 감지 영상을 송출한다. 추가로 설치된 지능형 CCTV는 LG 5G 전시관 내 방문자의 체류시간을 측정해 히트 맵으로 작성, 영상으로 표시한다. 관람객이 전시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래 머무는 구역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다.

저지연 영상전송 솔루션은 부스에 설치된 카메라로 전송되는 영상과 음성을 솔루션이 적용된 경우와 미적용된 경우로 구분해 화면에 노출, 속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B2B 부스를 찾은 관람객은 벽면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5G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이용해 도로상 정보를 cm단위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율주행 HD 맵 서비스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WC에서 5G 기반 B2B 서비스의 글로벌 업체 제휴 및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발전 방향 논의할 전망이다.

/김나인 기자

강인하지만 안정감 돋보이는 명불허전 ‘회장님 차’



제네시스 ‘G90’

신차에 가까울 정도로 외형변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내부 소재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더 안락해 다양한 최첨단 기술로 만족도 ↑



제네시스 G90 주행 모습.



제네시스 G90 실내 모습.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G90’이 출시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다. G90은 지난 2015년 출시한 플래그십 세단 EQ900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G90은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신차급 디자인 변화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하며 한층 젊어진 ‘회장님 차’로 거듭났다. 이같은 변화를 통해 지난해 11월 출시된 제네시스 G90은 그해 12월 2000여대가 판매됐다. 지난 1월에도 1400여대가 판매되는 등 기존 EQ900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제네시스 G90의 인기 비결을 분석하기

위해 3.3터보 모델의 시승을 진행했다. 외형은 신차에 가까울 정도로 변화를 줬다. 차량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라인을 적용해 안정된 느낌을 강조했다. 휠은 중앙으로부터 여러 바퀴살이 퍼지는 ‘멀티스포크’ 형상으로 한눈에 제네시스 G90임을 감지할 수 있다. 후면부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고급스럽게 표현해 존재감을 높였다. 단, 후면부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실내 공간은 여유로웠다. G90의 제원상 크기는 전장 5205mm, 전폭 1915mm, 전고 1495mm, 축거 3160mm다. 성인 4명이 탑승했지만 공간

은 넉넉했다. 실내 디자인은 수평적이고 간결하게 구성됐지만 대부분 소재의 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웠다. 차량의 주행성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울려도 출발해 양양국제공항까지 왕복 총 400km 구간에서 시승을 진행했다. ‘회장님 차’인 만큼 앞좌석보다 뒷좌석에서 최상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또 뒷좌석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능을 컨트롤 할 수 있다. 특히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은 노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에서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뒷좌석 승객에게 안락함을 제공했다. 주행 성능은 만족스러웠지만 차체 중

량 때문인지 다소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3.3터보 엔진을 탑재해 큰 차체를 이끄는 데 전혀 부족함은 없었다. 고속도에서 가속페달에 가볍게 힘을 주자 부드럽게 가속하며 순식간에 시속 160km를 넘어섰다. 고속 주행 중에도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역동적인 느낌보다는 편안하고 안정된 승차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렸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자 계기판에 후측방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됐다.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만족도를 높여준다.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완

벽했다. 차선을 이탈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로 표시해주며 음향과 진동으로 경고한 뒤 자동으로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준다. 또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지능형 차량 관리 서비스’도 매력적이다. ‘지능형 차량 관리 서비스’는 차량에 기록되는 유의미한 정보로 차량 운행 습관을 분석, 배터리와 브레이크 패드 관리 등의 운전자 맞춤형 차량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전·후석 고객도 각각 독립적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터널에 진입시 자동으로 창문을 닫으며 공기시스템을 내기순환모드로 변경해 놀라웠다. G90의 복합연비는 18인치 2WD 기준 8.8km/L이며 실제 시승에서는 9.1km/L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제네시스 G90 3.3 터보의 가격은 8099만~1억1388만 원이다. 시승 결과 G90은 첨단 안전사양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적용해 운전기사를 둔 ‘회장님’을 위한 고급 세단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럭셔리함과 편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은 운전자에게는 G70을 추천하고 싶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중, 8700억 LNG선 4척 수주

미주지역 선주와 계약 체결 올해 수주 목표 14% 달성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삼성중공업이 LNG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수주 실적을 이끌어 내며 실적 반등에 나서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미주지역 선주와 8704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2년 9월 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들어 LNG운반선 6척, 11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5조2651억원의 25% 수준이며 올해 수주 목표인 78억 달러(약 8조7800억원)의 14%로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LNG운반선을 18척을 수주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LNG운반선 수주는 삼성중공업이 이번 대량 수주 물량을 확보하면서 6척으로 가장 많고 대우조선해양이 1척을 수주했다. 지난해 LNG운반선 25척 수주해 국내 3사중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LNG선 1척을 수주한 상태다.

/양성운 기자

한화 S&C 합병효과 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수익성 개선

영업익 572억... 23.5%증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S&C 합병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외형 확대 효과와 항공 수주 잔고 증가, K-9자주포 인도 수출 물량 확대, 민수사업 안정화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 4분기 매출 1조6473억원, 영업익 57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23.5% 늘어난 셈이다. 한화 관계자는 “엔진사업의 수출 증가와 한화S&C와 합병 효과 등에 힘입어 매출이 확대됐다”며 “영업이익은 합병효과에 더해 민수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556억원으로 전년보다 32.9%가 줄었다. 하지만 순이익은 515억원으로 지난해 순손실 576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우선 항공 엔진사업은 프랫앤휘트니(P&W)의 기어터보팬(GTF) 엔진 수요 확대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모두 늘었

다. 또 방산사업은 한화디펜스의 K9자주포 내수물량 확대와 한화시스템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의 안정적 진행, 한화S&C와 합병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됐다. 민수사업인 한화과워시스템은 주문형 압축기사업의 매출 확대에 외형 성장과 함께 2017년 회사 설립 뒤 첫 흑자를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개선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화그룹 지배·사업구조 재편의 수혜, 방산매출 지속 성장 등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김유진 기자 ujn6326@

LG하우시스, 북미 인조대리석 공략

美 ‘KBIS 2019’ 참가 프리미엄 신제품 대거 선보

LG하우시스가 세계 최대 인조대리석 시장인 북미 지역 추가 공략에 들어갔다. LG하우시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인 ‘KBIS 2019’에 참가해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LG하우시스는 엔지니어드 스톤 ‘비아테라’와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하이마크’ 신제품 총 16종을 소개하고, 이 제품들을 주방 및 세탁실 등 실제 주거공간에 적용한 모습을 공개했다. 특히, 기존 비아테라 제품에 천연 대리

석 무늬를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한 ‘비아테라-돌체’와 부드러운 곡선 패턴으로 가공성을 높이고 밝은 크림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구현한 ‘하이마크-스트라토 크림’이 현지 건축 및 인테리어 업체 등 관계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LG하우시스는 현재 북미 마크릿계 인조대리석 시장에서 20%대의 시장 점유율로 듀폰에 이어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엔지니어드 스톤 시장에서도 4위를 기록하며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내 엔지니어드 스톤 3호 생산라인 증설까지 끝나면 북미 지역에서의 생산규모가 기존 대비 50% 증가한 105만㎡까지 증가해 성장세가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BMW·볼보 등 수입차들도 ‘레몬법’ 수용 움직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벤처·도요타 등도 검토 진행 중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수입차 업체들도 적극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가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 발생할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급차 브랜드 롤스로이스와 BMW, 볼보 등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 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브랜드는 볼보코리아다. 볼보코리아의 경우 레몬법 자체가 소비자(구매



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

자)들을 케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살펴 신차 구매 계약 체결 시 교환 환불 중재 등 규정 내용들을 구매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볼보코리아는 레몬법을 구매자가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는 등 레몬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레

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BMW의 경우 단순히 레몬법을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사전경고시스템까지 준비해 궁극적으로는 동일하자 및 긴 수리 기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롤스로이스도 ‘레몬법’을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레몬법’과 관련해 ‘관련 법령 및 중재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련 사항을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라며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렉서스는 회사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1919년 3월 1일
200만 국민이 참여했던 3.1 만세운동

세상을 바꾼 작은 힘

열여섯 어린 소녀의 작은 외침이, 3.1 만세운동의 거대한 함성으로
상하이 좁은 골목에서 시작한 꿈이, 독립운동의 거대한 교두보로
그 작은 힘들이 모여 오늘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KB금융그룹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KB금융그룹은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바꿨던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KB KB금융그룹



**키움증권
연 2.75% 채권 판매**

키움증권은 하이투자증권과 함께 2019년 7월 25일(154일), 연 수익률은 세전 2.75%이다.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 방식이다. 신용등급은 A- 안정적(한국신용평가)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종합주류회사인 하이투자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하이투는 소주부문에 국내시장 50%를 초과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맥주부문의 점유율은 30%로 시장 2위이며 발포주(필라이트)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손업지 기자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25일 투자설명회 개최

IBK투자증권 분당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4시부터 분당구 IBK기업은행 서현역지점 6층에 위치한 대강의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명함 걸고 하는 투자설명회'를 주제로 IBK투자증권 우수 프라이빗뱅크(PB)들이 바이오 대표 종목과 향후 유망 업종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1부에서는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장현석 PB가 시장의 관심이 높은 바이오 주요 종목 및 수급개선 종목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정경민 PB가 올해 상반기 핵심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예정이다. /손업지 기자



**신영증권
펀드현황 동영상 브리핑**

신영증권이 가입펀드의 운용 현황을 브리핑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영증권은 21일 우수고객에게 밸류업(Value-up) 펀드 리포트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밸류업은 2017년부터 대표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우수고객에게 인쇄물 형태로 제공하는 펀드 리포트 서비스다.

신영증권은 콘텐츠 소비방식의 변화 추세에 맞춰 펀드 리포트를 고객 입장에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동영상 형태로 제공한다. 밸류업은 6개월간의 운용 현황 분석과 투자자의 궁금증을 운영역 질의응답(Q&A) 형태로 제공해 우수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배한님 기자

투자자, 갤럭시 폴드 수혜주 찾기 분주

출하 매년늘어 4년내 6천만대 전망
비에이치·삼성전기·엠씨넥스 등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수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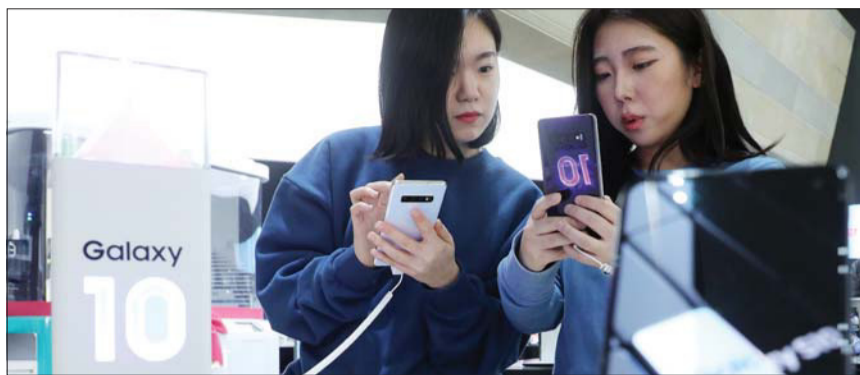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Galaxy Fold)'가 스마트폰 시장의 품팩터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포화에 다다랐던 스마트폰 관련 종목에도 단비가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21일 삼성전자의 이번 신제품 언팩 행사에서 전면 배치된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를 제시해 관련 부품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20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당장 급증하진 않겠지만 스마트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만큼 장기적으로 관련 업체에 긍정적인 것이라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 폴드의 경우 당장 올해 출하량이 100~200만대 수준으로 예상돼 절대 판매량 보다는 가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하나금융투자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21일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시민들이 갤럭시S10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시리즈를 이달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국내 공식 출시는 3월 8일이다. /연합뉴스

내다봤다.

김복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 대수를 2020년 900만대, 2021년 4000만대, 2022년 6000만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222만원이라는 가격 역시 우려 대비 비싸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아웃 폴딩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다면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폴더블 관련주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250만~300만원 수준 보다는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한 수혜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인 SKC코오롱PI, 비에이치, 삼성전기, 엠씨넥스, 슈프리마 등을 예상했다.

전통적으로 신규 제품이 출시될 때 관련 부품 시장 중에서도 새롭게 열리는 부품 시장의 독점 공급 업체가 주목받은 만큼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채택된 PI 베이스 필름의 독점공급업체인 SKC코오롱PI의 실적에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SKC코오롱PI는 접을 수 있는 OLED 패널 하단의 베이스 필름(Base Film)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다.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SKC코오롱PI를 주목했다.

비에이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으로 연성 인쇄회로기판(FPCB)부품을 공급한다.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FPCB는 면적이 넓어지고, 휴대폰 형태에 따라 대량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주민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매출은 2019년 156억원, 2020년 468억원으로 전사 매출비중의 각각 1.9%, 4.9%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리츠증권권을 비롯해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 비에이치를 추천했다.

이밖에도 갤럭시 폴드의 지문인식 방법인 초음파식 인-디스플레이(In-Display) 관련 기업인 '슈프리마',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로 신규 수주를 받을 전망이다. 'AP시스템', 다양한 플렉시블 OLED 장비군을 보유한 '디아이티', 향후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유리 커버 윈도우 기업 '뉴와이프라스마', '삼성전기'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24일 화웨이도 폴더블폰을 공개함에 따라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폴더블 스마트폰의 장래가 밝다"고 전망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올 상장사 실적 '마이너스'... 외국인 담는 '옥석株' 노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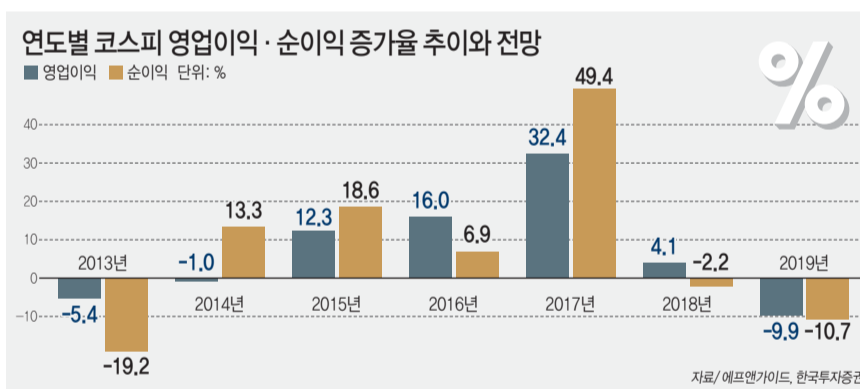
(코스피 영업이익·순이익)

**6년만에 영업익·순익 감소 전망
LGD·한국항공우주 등 노려볼 만**

상장 기업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실망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종목 옥석가리기' 움직임도 덩달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실적 공개가 마무리되면 어떤 종목이 새롭게 상승세를 탈지 관심이 높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돋보였던 종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매수세가 물리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쌍끌이 호재'를 맞는 종목은 어닝 시즌 마무리 후 가장 먼저 주목받는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올 영업익·순이익 감소 예상

21일 에프앤가이드와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예상 영업익은 183조원(-9.9%), 순이익은 125조원(-10.7%)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라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영업익과 순이익 모두 줄어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 부진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잘 말해 준다.



실적을 내놓은 484개 종목 가운데 시장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224개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29조원, 순이익은 15조 6000억원으로 실적발표 시즌 전 컨센서스 대비 각각 31.5%, 48.9% 하회했다. 4분기 회계처리 관행을 빼더라도 어닝쇼크 수준이란 평가다.

유안타증권 김광현 연구원은 "4분기만 되면 예전에 없던 총당금이 쌓이고, 예전에 없던 보너스가 지급되는 등 일시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회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매출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매출 자체가 부진을 겪기도

한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다. 어닝쇼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어닝쇼크가 다음 회계년도 실적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이후 2019년 상반기 전까지는 -25.2% 하향 조정됐다. 특히 연초 이후 하향 조정 폭이 -14.3%로 높게 나타났다.

◆LGD·한국항공우주 등 외국인 매수 호재
전문가들은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믿을 건 펀더멘털이 튼튼한 실적주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투자증권 안혁 연구원은 "큰 폭의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과 이

익이 증가하는 비(非)반도체 업종을 구분한 이원화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잡정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웃도는 종목이 향후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LG디스플레이, 아이에스동서, IHQ, CJ프레시웨이, SK가스, 현대엘리베이터, 영풍정밀, 한전KPS, 서울반도체, 동원 F&B, 신세계 I&C, 한국콜마, 현대건설기계, 한국항공우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LG디스플레이와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의 주요 쇼핑 대상이 되고 있다.

IBK투자증권 이정빈 연구원은 "컨센서스 순이익이 증가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서프라이즈 비율이 양호하고 장기성 자금인 연기금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일수록 양질의 초과수익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한지주, 삼성에스디에스, LG생활건강, 한온시스템, 메리츠증권, 현대미포조선, 대웅제약, 한샘, SK머티리얼즈, 이노션 등을 제시했다.

/김문호 기자 kmh@

LH, 올 공사·용역 1013건 10.1조 발주

토지사업에 2.8조, 주택공급에 7.3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013건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

LH는 21일 주거복지로드맵 목표 달성,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택지공급을 위한 토지사업에 2조 8000억원(15.9%),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사업에 7조3000억원(7만5000호)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발주유형은 공사부문의 경우 ▲종합심사 70건, 5조9000억원 ▲적격심사 584건, 3조6000억원이다. 용역부문의 경우 ▲적격심사 208건, 1000억원 ▲설계 공모 61건, 1000억원이다.

공공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각각 5조 9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3%를 차지하며 그 외 전기·통신 공사가 1조5000억원, 조정공사가 6000억원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예탁원, 전자투표 시스템 연수 '인기'

201개 회사, 담당자 270명 참석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최한 전자투표 시스템 실무연수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전자투표(K-eVote) 실무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연수는 주식 발행회사의 주총 담당자들에게 전자투표 실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다가올 2019년도 주주총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개최됐다. 연수는 발행사의 전자투표 실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K-eVote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수 종료 후에는 상담 코너에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상세한 인내가 이루어져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주총회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배한님 기자

수익·안정성 ‘두마리 토끼’... 돈 몰리는 해외부동산

금융투자도 직구시대

〈중〉 해외부동산 ‘눈독’

기대 수익률 연 6~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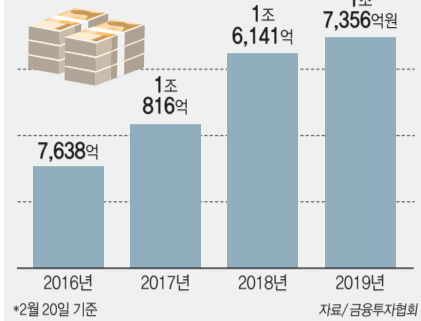
시장 부진엔 손실 염두해야

저금리 지속과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금융투자업계가 해외 부동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은 해외부동산 공모 펀드를 출시하고 있고, 증권사는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WM)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해외부동산 투자 기회를 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외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2조5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1075억원) 대비 19%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성장세는 해외 부동산펀드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순자산 추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 중 해외 부동산펀드의 비중은 69.2%로 압도적이다.

◆자산운용사, 해외 부동산을 잡아라

국내 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 펀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에서부터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투자변경도 넓어지고 있다.

현대자산운용은 오는 25일 영국 에든버러(Edinburgh)에 위치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National Health Service)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꾸준한 임대료 수익이 펀드의 주 수익원이다. 총 830억원의 투자비용 중 330억원 정도를 펀드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트리아노빌딩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내놨다. 9월 모집한 스페인 네슬레 공모펀드(556억원)를 포함하면 총 2431억원을 해외부동산 펀드에 유치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운용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3개의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중 2개를 이지스운용이 만들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이후 설정된 해외 부동산 공모형 펀드는 18개(설정액 10억원 이상)로 현재 운용중인 33개 펀드 중 절반 이상이 2017년 이후 만들어진 펀드다. 그만큼 자산운용사들의 해외부동산 펀드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다.

◆증권사, 해외 부동산을 고객에게

증권사들은 해외부동산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섰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아마존이 장기 임차한 미국 물류센터 지분을 단독 인수했다. 투자 규모만 7800만달러에 이른다. 또 NH투자증권과 공동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브릿지론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공동 주관에 맡겼다. KB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운용사 없이 직접 판매에 위치한 롯데호텔을 인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IB와 WM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해외 부동산 투자기회를 고객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 증권사 PF 본부장은 “최근 임원급 회의에서 본부장을 불러 PF를 고객들에게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WM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부동산을 재구조화해 금융상품으로의 출시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미국 드림웍스 본사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판매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벨기에 외교부 청사건물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등 활발하게 상품화하고 있다.

또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는 연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진국 부동산 등을 재구조화해 국내 국내 투자자들에게 증위험·중수익 구조의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미국 법인을 설립해 뉴욕 맨해튼 빌딩 두 곳에 총 1227억원을 투자하는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해외부동산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보통 연 6~7%대 수준으로 예금 금리보다 높지만, 매각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환율에 따른 변동성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조흥래 “혁신성장 이끄는 강한 협회 만들 것”

(이노비즈협회 신임 회장)

‘기술 중심 허브 되는 것’ 목표 실현 위한 4가지 아젠다 발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한 이노비즈가 되겠다.”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9대 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조흥래 한국도κι맥 대표의 비전이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중심 글로벌 패러다임 구축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허브 이노비즈의 4대 아젠다도 함께 내세웠다.

21일 협회에 따르면 조 신임 회장은 전날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협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의결됐다.

조 회장은 “협회의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노비즈기업들이 기술 교류와 융합을 해 혁신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2019년 이노비즈협회 차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이노비즈협회 9대 회장에 취임한 조흥래 한국도κι맥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마련해주고 싶다. 결국 협회가 기술 중심의 허브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2008년부터 이노비즈협회 임원사 역할을 해 온 조 회장은 직전 성명기 8대 회장과 호흡을 맞추며 수석부회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

조 회장이 98년 당시 설립한 한국도κι맥은 유압펌프, 유압밸브 등 유압 제

품과 실린더, 메카트로닉스, 로봇 분야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기술에 관해선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조 회장은 이노비즈협회와 회원사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나가기에 적극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들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해가는 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확대·지원 등을 통해서다.

조 회장은 “협회는 오랜기간 일자리 창출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보급하고 고용안정과 지역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안건준 “신산업규제 해소 위해 건의 강화”

(벤처협회장)

회원사 참여 가능 사업 주도적 추진

“신산업규제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에 관련 건의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난 2년간 벤처기업협회를 이끌었던 안건준 회장이 협회와 회원사들을 위해 앞으로 2년간 더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1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안건준 회장 연임을 최종 확정했다.

2025년 비전으로 ‘대한민국 벤처가 새 물결을 이끌고 전 세계를 흔든다’로 설정했다. 아울러 ‘벤처생태계 고도화 지속 추진’과 ‘협회 자체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구조적 규제개혁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계획 지속 추진 ▲대회원사 실질적 서비스 강화 ▲기업가정신 고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양 및 벤처인 기살리기 운동 추진 ▲운영구조 재편을 위한 주력사업 런칭 ▲사무국 조직문화 고양과 내부역량 강화 등을 전략과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협회는 대북경협사업, 스마트티터국가시범사업, 채용지원사업 등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전략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011·017 번호, 역사 속으로...

SK텔레콤, 2G 서비스 올해 말 종료

본격적인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앞두고 SK텔레콤이 23년간 명맥을 이어온 2G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종료한다. 기존 2G 이용자에게는 3G·롱텀에볼루션(LTE)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SK텔레콤은 올해 말 목표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2G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1만명에 달한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시작했다. 2G 서비스는 1996년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상용화 후 시작돼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2G 서비스가 2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SK텔레콤은 2G 장비 노후화와 단말 생산 중단, 가입자 지속 감소, 5G 중심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형성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미국 AT&T, 일본 NTT도코모·소프트뱅크, 호주 텔스트라 등 글로벌 주요 사업자들은 한정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미 2G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 KT 또한 2012년 3월에 2G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정부 또한 2G 서비스의 주파수 사용기한을 2021년 6월로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70만명에 달하는 2G 가입자를 보유한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종료 계획이 없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연말까지 서비스를 전환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이원화했다. 우선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일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일 사용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2G 가입자가 서비스 전환 시 2G 요금제 7종에 대한 가입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해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 중이던 레인보우포인트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각종 결합할인 및 장기고객 혜택도 변경없이 유지·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 2종

① 단말구매 지원형

+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
+ 24개월간 매일 요금 1만원 할인

② 요금할인형

+ 24개월간 매일 요금제 70% 할인

- 결합할인,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 선택약정, 무약정종료, 1차원금약정과 중복 가입 불가
*본인 명의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단말 구매 지원금 30만원 분량만 지원하며, 단말 구매 지원금 30만원 초과 시 차감된 금액은 본인 부담
*본인 명의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단말 구매 지원금 30만원 분량만 지원하며, 단말 구매 지원금 30만원 초과 시 차감된 금액은 본인 부담

〈서비스 전환시 가입가능한 2G 요금제〉

구분	요금제	월정액
어르신	뉴실버	9,900원
일반고객	무료음성 19	19,800원
	무료음성 28	22,500원
	무료음성 34	25,300원
청소년	팅 Plus 14	15,400원
	팅 Plus 19	20,900원
어린이	팅 주니어 표준+	11,000원

*무료음성 요금제의 경우 24개월 약정 기준 금액. /자료=SK텔레콤

서비스 전환 프로그램은 21일부터 시행된다. 2G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기존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서비스 전환 후에도 기존 '01X(011, 017 등)' 번호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정부가 마련한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이란 '01X' 번호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번호 그대로 3G, LTE,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2G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MMS·SMS) ▲T월드 홈페이지 및 각종 앱 ▲우편·이메일 요금 안내서 ▲인터넷·TV·신문·전화 등을 통해 2G 서비스 종료 및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은 “‘CDMA 신화’의 주역인 2G 서비스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선보여 ICT 강국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히비 갈린 신세계家... 백화점 '웃고' 이마트 '울고'

분리경영 3년 성적표

정유경의 신세계백화점

화장품 매출 힘입어 매출 사상 최대

정용진의 이마트

오프라인 부진에 영업이익 21% 줄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자율주행카드 일라이를 시연하고 있다. /이마트



신세계제대프

어,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신세계제대프는 인천공항 면세점 개장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신세계제대프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8%, 160% 늘었다.

올해 1~2월 매출도 나쁘지 않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세 이어지고 있으며, 판촉 경쟁도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비디비치' '연작' 등 화장품 사업 호조에 힘입어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3500억원, 영업이익 803억원이 예상된다. 핵심 브랜드인 '비디비치'는 중국에서 '쁘띠샤넬'로 입소문타고 있으며 직전 1월 한달 동안 매출만 215억원을 기록, 브랜드 역사상 최고 월매출

을 기록했다. 이는 비디비치의 2017년 전체 매출 229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비디비치가 현재 면세점 매출액을 유지한다면 비디비치 2019년 연간 매출액은 2400억원이 예상된다. 비디비치 이외에도 답디크, 연작 등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화장품 브랜드의 선전이 기대된다.

반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이마트는 소비 침체와 오프라인 매장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이마트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9% 줄어든 4628억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분기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3% 증가, 55.9% 감소한 4조 6785억원, 614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이마트 오프라인 부문의 기존점 매출 신장률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8%, 53% 감소했고, 트레이더스 영업이익이 9% 감소, 온라인몰 영업적자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마트 실적 부진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 고객 감소다.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으로 소비자가 몰리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외형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신선식품도 당일 배송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패턴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2030 젊은 층이 할인마트에 가는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마트는 올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시너지 강화, 참고형 할인점 사업으로 매장 차별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이탈하는 고객을 방어하기 위한 최저가 상품 제공, 점포 디지털화와 SKU(Stock Keeping Unit) 축소를 통한 비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실제로 이마트는 생활 필수품 가격을 내리는 '국민가격 프로젝트'를 실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국민가격 프로젝트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할인이 핵심이다. 1차 국민가격 상품으로는 삼겹살/목심, 전복, 계란 등을 최대 50% 가량 저렴한 가격에 내놨고, 행사기간 동안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출기여뿐만 아니라 초저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마트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하며 오프라인 할인점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행사기간중 유입된 신규 고객은 17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고객 방문수와 비교해 13% 늘어났다.

이마트는 또한 오프라인 점포의 온라인 거점화로 갈수록 심화되는 온라인 경쟁에 다방면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점포에서 비식품 진열공간을 줄이고 온라인 배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은 대형마트가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전략으로, 비용 효율화 효과를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택시업계 고발에 타다 "경쟁관계 아냐"

4월 '타다 프리미엄' 출범

타다 "오해 불식을... 혁신사례 될 것" 택시 "타다 시작 후 매출 30% 감소"



박재욱 VCNC대표가 21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다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차량호출서비스업체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협업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 계획을 알렸지만 한 번 불붙은 택시업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타다는 21일 오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참여가 가능한 준 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택시와의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택시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해가 많이 불식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목표는 교통 수송 부담률 55%의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효율을 줄이는 데 있다"라며 택시업계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타다는 승객이 차량을 호출하면 승용차 대신 1인승 승합차로 이용자를 목적

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타다 프리미엄은 지난 1월 택시운수사업자 6곳과 함께 시작한 프리미엄 렌에약 서비스 '타다 VIP VAN'에 이은 두 번째 협업 모델이다. 타다는 직접 파트너 법인과 기사를 모집해 기존 이동 산업과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VIP VAN을 통해 택시회사와의 초기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은 여기에서 나아가 더 많은 택시 회사, 기사님들과 협업함으로써 모빌리티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운전자를 고용해 승합차에 태워 운송하는 것은 '유사택시행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긴 불법행위가 아니냐며 타다에 반발하고 있다.

한 택시 운전자 A씨는 "타다가 시작된 이후 매출이 30% 감소했다"며 "택시 승객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타다 측에서는 이 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타다의 요금은 택시보다 20~3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비스가 좋고 승차거부가 없다는 평을 받으며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어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회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이사장 및 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 C의 박재욱 대표와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쏘카는 법적 조치 등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쏘카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협업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 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LG전자, 창원공장 에어컨라인 풀가동

LG전자는 이번주부터 경남 창원 에어컨 라인을 풀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어떤 소비가 급증하면서 생산량을 전년대비 10% 이상 늘렸기 때문이다. 사진은 LG전자 직원들이 썬큐 에어컨을 생산하는 모습. /LG전자

해수부 해외항만 개척 협력사업 추진

정부가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연계한 해외항만 시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항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해외항만 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세계 항만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신남방·신북방사업 중점 지원 ▲해외진

출 기반 구축 ▲수주 경쟁력 제고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의 대외 정책기조에 맞춰 아세안(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항만 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건설사, 선사, 운영사 등 실무자들로 구성된 'K-컨소시엄'을 운영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산업부 기업 수출 활력제고 총력전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민간합동 수출전략회의와 수출통상대응반, 15개 시도 수출활력촉진단 가동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조만간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계부처 합동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시설·운전·제작자금 지원

및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무역금융 확대와 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지사화 지원 확대 등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가 주 내용으로 포함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농식품, 바이오헬스, 한류 연계 문화컨텐츠 등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공급과잉' 2분기 D램값 15% 하락 전망

D램 가격 하락세 낙폭이 줄어들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도 예상됐다.

21일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가격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5% 안팎으로 하락할 예정이다. 수요가 일부 뒤살아날 수 있지만, 공급과잉이 계속 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디램익스체인지는 1분기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20~30% 급락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지난 4분기부터 이어진 가격 하락세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다.

하반기에도 업황이 밝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신규수요가 시장을 회복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서버용 D램 하락폭이 가장 크고, PC 제품도 적지 않게 떨어질 것으로 봤다. 모바일용 가격 하락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하락폭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생산업체가 설비투자를 축소하면서 공급 과잉도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용 기자 juk@

안경은 으뜸50안경에서 하자!



Optical Chain Store 으뜸50안경

새해 이벤트 2탄!

새학기 맞이 으뜸50안경 고객 감사 행사

학생용 고급 안경테 **모아이(MOEYE) 9900원**

모아이(MOEYE)

2019 으뜸50안경 새해 EVENT 3탄

이벤트 기간: 2월 1일~2월 28일
결과 발표: 3월 11일 월요일

으뜸 50안경과 키에그가 총 505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 1 으뜸 50 안경에서 키에그 안경렌즈를 맞춥니다~
- 2 으뜸50안경 top50glasses 공식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
- 3 키에그 안경렌즈 봉투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으뜸 50 안경 #키에그 #으뜸 50 안경♡점 **해시태그 참여완료!!**

이벤트 상품



강남1호점	02-3477-2006	미아사거리점	02-988-0508	원주점	033-747-5059
강남2호점	02-2052-2022	수원영통점	031-203-2002	천안점	041-564-5001
강남3호점	02-523-7712	수원아주대점	031-211-1825	대전둔산점	042-484-4188
왕십리점	02-2295-5051	수원역점	031-257-1825	대전도안가수원점	042-541-4188
영등포점	02-2634-5050	안양범계점	031-381-1215	대전관평점	042-936-7787
까치산점	02-2693-2688	산본점	031-392-0567	부산남포점	051-256-8816
망원점	02-325-0356	의왕점	031-454-6552	부산사상점	051-313-0407
홍대점	02-332-1175	안산중양점	031-504-9963	부산덕천점	051-337-2535
연신내점	02-356-9127	이천점	031-637-1103	부산동래점	051-552-4819
발산점	02-3665-2583	평택점	031-657-5006	부산경성대점	051-866-1400
건대역점	02-466-5635	분당점	031-705-6505	울산남구점	052-257-0068
이수역점	02-522-0711	동탄점	031-8003-9002	대구중구점	053-428-8001
반포점	02-535-7750	의정부점	031-840-0085	구미점	054-451-0375
천호동점	02-6052-1563	일산동구청점	031-932-8455	포항점	054-615-5545
남영역점	02-707-0780	일산화정점	031-972-1882	광주충장로점	062-229-0007
대학로점	02-747-5707	역곡역점	032-348-2020	광주상무점	062-376-0111
명동1호점	02-752-3931	인천구월점	032-425-6505	광주전남대점	062-382-3939
신림1호점	02-859-3331	인천부평역점	032-511-0110	광주수완지구점	062-955-5083
신림2호점	02-888-8021	춘천점	033-263-0049	전주객사점	063-288-3734
노원역점	02-934-6789	강릉옥천오거리점	033-655-2828	전북익산점	063-857-3734



지식산업센터부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까지

밀린 물량 쏟아진다 '교통인프라'에 주목

학의천 '배산임수 명당'에 자리잡은 명문학세권

**| 대우건설·삼성물산 |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대우건설·삼성물산은 오는 22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19-30 일원에 비산2구역 재건축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59~105㎡, 1199가구 가운데 65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 공급되는 주택형은 전용면적별로 ▲59㎡ 196가구 ▲68㎡ 57가구 ▲84㎡ 353가구 ▲97㎡ 44가구 ▲105㎡ 61가구다.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는 안양중앙초와 지하보도로 바로 연결되며 부흥중·고, 부림중, 평촌중·고, 범계중 등 명문

학교가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는 학의천이 앞에 위치해 학의천 산책로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일부세대는 학의천 조망도 가능하다. 배산임수의 명당 지형에 학운공원, 운곡공원, 관악산 등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와 안양성모병원, 안양시청, 동안구청 등이 자리잡고 있다.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평촌IC), 1번국도(경수대로), 47번국도가 인접해 있고 1호선 안양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작년 11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월곡~관교선이 향후 개통되면 안양운동장

역(가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는 물론 4베이와 대부분 판상형으로 구성한다.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 현관워크인장, 팬트리 등을 도입하고 학습실, 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주민회의실, 보육시설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보안로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단지출입구에는 외부 차량의 출입 통제용 시스템인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도 도입한다. 무인경비 시스템과 지하주차장 비상벨 시스템은 물론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단지 내 무인택배 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는 실별 온도 조절기와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외출시 현

관에서 조명을 일괄 소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세대 내 전등을 모두 LED로 설치할 예정이다. (1800-4040)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강남·분당·관교 '생활인프라' 누리는 복합단지



수지 동천 꿈에그린 아파트.

| 한화건설 | 수지동천 꿈에그린

한화건설은 오는 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49-10번지 일대에서 '수지 동천 꿈에그린' 아파트 293가구와 오피스텔 207실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74㎡ 148가구 ▲84㎡ 145가구다. 오피스텔은 33~57㎡로 투룸 위주의 주거형 상품으로 공급된다.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서쪽에 광교산과 남측 손곡천 소재로 자연환경과 강남·분당·관교의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신분당선 동천역을 걸어서 이

용 가능(약 10분)하다. 동천역에서 관교역이 2정거장, 강남역이 6정거장으로 강남역까지 2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왕관교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영동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분당~내곡간, 분당~수시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도로망도 인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관교신도시, 동쪽으로는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마트, 아브뉴프랑 관교 등 분당 및 관교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복합단지인 만큼 상품성도 뛰어나다. 단지가 광교산 자락에 자리해 단지 내에서도 사계절 고유경관을 즐길 수 있다. 판상형, 남향 위

주도 단지를 배치한다. 아일랜드식탁 제공으로 충분한 주방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채광과 환기가 원활한 드레스룸도 조성한다. 대부분 타입에서 현관장, 불박이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적용한다. '투룸 주거형 아파텔'로 설계한 오피스텔 또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호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배산임수의 입지와 강남·분당·관교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지 동천 꿈에그린의 견본주택은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신분당선 동천역 2번출구)에 3월 중 오픈 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1600-4900)

/이규성 기자

GTX-C 노선 통하는 '산업단지'의 새 동지로

| 한라 |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한라가 오는 3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초역세권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인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를 선보인다.

㈜삼부산업이 위탁해 생보부동산신탁이 시행하고 ㈜한라가 시공하는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수원 서둔동에 들어선다. 오피스텔 18~25㎡ 234실 1개동과 도시형생활주택 39~49㎡ 288가구 등 522가구로 조성된다.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KTX,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와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예정) 환승역인 수원역과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수원~양주)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수원~삼성구간까지 20분만에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수원이 추진 중인 수원역~장안구청 트램(총연장 6km)을 포함하면 수원역 핵심터플(6개의 환승노선)을 건설한다. 수원역 인근은 최근 예비타당

성 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의 수혜 지역으로 GTX-C노선은 오는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수원역 일대의 산단을 중심으로 53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1만1000여명이 근무하는 수원산업단지를 비롯해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멀티플렉스인 '도이치오토월드'와 현대차 자동차 매매단지인 'SK V1 모터스' 산업단지 등이 완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 산업을 육성하는 35만㎡ 규

모의 R&D 사이언스파크, 수원 스마트 폴리스 시티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계획돼 있다.

단지 인근에 롯데몰(백화점·마트·쇼핑몰), AK플라자 등 매머드급 쇼핑시설 뿐 아니라 KCC몰(예정), 스타필드 수원점(예정)도 가깝다.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수원역 인근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522가구의 대단지다. 풀퍼니시드 시스템(일부 제외)을 갖추고 기존 오피스텔에선 보기 힘든 자주식 주차방식을 적용한다. 피트니스 센터, 코인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한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서둔동 323-152(현장 주소와 동일)에 마련된다. (1644-5558)

/이규성 기자



수지 동천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2월 청약시장'이 활발하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폭탄'으로 예정된 물량 상당수가 미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단지는 전국 1만239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61.7% (7644가구)나 늘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눈에 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다. 교통, 인프라 등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들어서 주목된다. 이달 건설사들은 서울·경기 지역 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앞두고 있다. 동성건설은 경기도 부천 신중동역 인근에 '신중동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두산중공업은 경기도 안양 명학역 인근에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를, 롯데건설은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 '가양역 더스카이밸리 5차'를 분양한다.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삼성물산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구역을 재건축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를 일반분양한다. 이밖에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수지 동천 꿈에그린' 등 교통 호재를 품은 오피스텔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업무복합시설, 집에서 먹고·자고·일하고·놀고!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

| 두산중공업 |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

두산중공업은 오는 26일 지하철 1호선 안양 명학역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를 분양한다.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는 지식산업센터, 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직장과 거주 기능을 모두 갖춘 원스톱 직주형 업무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400m 내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1층, 1개동이다. 대지면적 6만611㎡, 연면적 4만5627㎡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6층은 지식산업센터, 지상 7~8층 섹션오피스, 여기에 지하 1~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9~11층에는 기숙사 104실도 함께 들어선다.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가 들어서는 안양 명학역 일대는 신흥 지식산업센터 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안양벤처

밸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자리하고 있다. 또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수산업도로,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1번 국도 등 주요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안양시가 명학역 일대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지구 내 입주 기업은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면 취득세 50%, 재산세 37.5% 등의 세금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과 매입가의 최대 80%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섹션오피스는 호실 조합을 통해 면적 선택의 폭을 넓혀 중소기업은 물론 1인 기업, 스타트업 등 소규모 창업자들이 입주 가능하다. 지상 9층~11층까지는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들어선다.

원룸형부터 투룸형까지 3개 타입으로 꾸며지며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동 빨래 건조대, 인덕션 등 다양한 생활가전과 가구를 갖춘 풀퍼니시드(Full Furnished) 시스템을 적용한다. (1588-7816) /이규성 기자 peace@

공장·상업·기숙사... '제조 특화' 지식산업센터

| 동성건설 | 신중동 더퍼스트

동성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284번길 23 일대에 지식산업센터 '신중동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신중동 더퍼스트'는 공장과 상업시설, 기숙사를 갖춘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1층~지상 13층, 1개동 규모로 제조형 특화형이다.

상업시설은 지상 1층, 15호실 규모이다. 기숙사는 지상 10층~13층까지 180실이 들어선다. 공장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전용면적 100㎡이하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51㎡부터 181㎡까지 다양한 타입을 갖추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내부 공장 평면을 보면 전 층의 층고가 6.0m다. 전 호실에 서비스 발코니를 제공한다. 일부 호실에는 양면 서비스 발코니가 지원된다. 지하 1층~지상 8층 중량형 제조공장의 경우 2.5톤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전 층에 1.0톤 하중설계를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인' (Drive In)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 기업들의 물류수송이 한층 더 편해진다.

신중동역은 1일 이용객이 2만9853명(서울교통공사, 2018년 12월 31일 기준)에 달하는 인기역으로 롯데백화점, 부천시청, 은행, 우체국 등 생활편의시설이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다.

신중동 더 퍼스트는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의 역세권 단지로 경인고속도로(부천IC), 외곽순환도로(중동IC) 등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김포공항, 인천항 등과도 30분대에 갈 수 있다.

이어 대곡~소사 복선전철(2020년 개통 예정), 원종~홍대선 신설(2030년 개통 검토 중),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2026년 개통 예정) 등 수도권 광역철도 관련 교통망도 계획돼 있다.

신중동 더퍼스트 내 상업시설도 동시에 분양할 예정이다.

10~13층에는 입주기업 임직원 등의



신중동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주거편의를 위해 기숙사 180실이 만들어진다. 기숙사의 경우 소형 오피스텔 등에서도 보기 힘든 전 호실 발코니를 설치해 서비스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발코니 확장에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

신중동 더퍼스트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41-3, 신중동역 헤리움 메트로타워 2층에 위치해 있다. (032)321-0080 /이규성 기자

여의도·강남까지 연결, 올림픽대로도 1분만에



가양역 더스카이밸리 5차.

가양역 더스카이밸리 5차

가양역 '더스카이밸리 5차'가 오는 3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628-9번지에서 분양한다. 가양역 인근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4층~지상 17층 높이에 총 연면적은 약 4만5233㎡, 근린생활시설과 지식산업시설,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가양역 더스카이밸리 5차는 9호선 가양역 7번 출구와 바로 맞붙어 있다. 특히 9호선은 마곡지구를 비롯해 여의도, 강남 등 서울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 데다 가양역은 급행열차까지 정차한다.

이 외에도 가양대교와 이어진 도로변에 위치해 약 1분이면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다. 상암 DMC와 김포공항 등 서부권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여기에 현재 계획 중인 서부광역철도까지 개통되고 나면 향후 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가양역 더스카이밸리 5차는 웅장한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고 전·후면에 공개공지(공개공간)를 배치했다. 2, 3층에는 야외 정원을 설계해 보다 쾌적한 업무 여건을 제공한다. 또 층별후계실을 비롯해 사위실, 세미나실 등을 제공하고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사용,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등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적용한다.

1~2층에 구성된 상가는 각각 6.5m,

6m의 높은 층고를 적용하고 2층 상가의 경우 야외정원을 배치한다. 더불어 가양역 7번 출구와 바로 맞붙은 초역세권 상가로 인근의 2만5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관련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 입주기업에게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건설(주)이 시공을 맡고, 국제자산신탁(주)이 시행을 담당해 안정적이다. 위탁관리는 디에스리더스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홍보관은 등촌동 628-7번지 아벨테크노 215호(가양역 7번 출구 인근)에 마련돼 있다. (02)3456-2600 /이규성 기자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달라져... ‘글로벌’ → ‘변화와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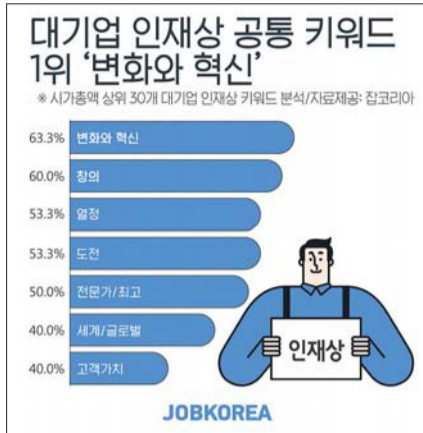
시가총액 30개 기업인재 키워드 분석

창의·창조 > 도전 > 열정 등
‘고객중심’ 사고 강조기업 40%

국내 대기업들의 인재상이 과거와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인재’를 1순위로 꼽았던 기업들은 크게 줄어든 대신 ‘변화’, ‘혁신’, ‘창의’를 인재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21일 잡코리아가 시가총액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인재상에 등장하는 키워드 총 250건을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이 나타났다.

집계결과 요즘 대기업 인재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으



로 응답률 63.3%나 됐다. 조사 대상 기업 10개사 중 6개사 인재상에서 ‘변화와 혁신’이란 키워드가 등장했다.

기업별로 삼성의 경우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인재상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기존의 정해진 질서에 도전하여 대담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가’를 인재상 중 하나로 꼽았다. KT&G 인재상 중에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가 포함됐다.

변화와 혁신에 이어 ‘창의·창조’ 키워드가 기업 인재상에 등장하는 경우(60.0%)도 많았고, 이어 ‘도전(53.3%)’, ‘열정(53.3%)’, ‘전문가/최고(50.0%)’ 순으로 인재상을 소개하는 기업이 많았다.

삼성생명은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소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자신감과 창의적 사고, 도전정신으로 창조 사회의 새로운 기업가치와 고객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추구한

다고 소개했다. LG전자도 ‘팀 워크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인하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높은 목표에 도전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을 하는 인재’를, 한국전력공사도 ‘도전적 인재’를 인재상으로 꼽고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강행하는 역동적 인재’를 인재상으로 추구한다고 소개했다.

이외에 ‘고객가치/고객중심/고객최우선’ 등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는 기업이 40.0%로 많았고, ‘세계/글로벌 시장(40.0%)’, ‘도덕성’, ‘인간미’, ‘책임감’을 인재상에서 강조하는 기업이 각각 26.7%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와는 2010년 동일 조사결과와 적지 않은 변화를 드러낸다. 실제 2010년 대기업 인재상 공통키워드로 ‘글로벌 경쟁력/국제감각’과 ‘창의/창조’가 응답률 각 5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전(51.2%)’, ‘전문가(48.8%)’, ‘조직력/팀워크(25.6%)’, ‘혁신적 사고(25.6%)’ 순으로 대기업 인재상에 많이 등장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과거 동일 조사결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 650개 명품강좌 온라인서 무료제공

2019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

K-무크,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회원 35.7만, 누적수강 77.6만건

대학의 명품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하는 강좌 수가 올해 대폭 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강좌를 듣고 학점·학위 취득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 기본계획’을 마련, 올해 150개 신규 강좌를 추가해 총 650개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고, 하반기부터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K-무크는 대학의 우수한 명품 강좌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10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직업교육강

좌 등 신규 150강좌가 추가된다.

K-무크 강좌는 도입 첫 해 27강좌에서 지난해까지 510개 강좌로 확대됐고, 회원가입자 수는 처음 3.5만명에서 지난해 35.7만명으로, 수강신청 누적건수는 77.6만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규 개발돼 제공되는 강좌는 2017년 K-무크 선도대학 10개교 강좌 30강좌를 비롯해, 묶음강좌 40개, 개별강좌 50개, 교육부 등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25개, 기관별 자체재원 활용 강좌 5개 등이고, 프랑스와 태국의 온라인 공개강좌도 추가된다.

특히 묶음강좌 40개는 ‘무인조종기전문가양성과정’, ‘문화재보존전문가양성과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와 전문인력양성 분야를 주제로 수강생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직접 활용될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단국대 SW·디자인융합센터 ‘iF 디자인어워드’ 수상

단국대는 SW·디자인융합센터의 ‘수원시 스마트시티 모바일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난 15일 ‘2019 iF 디자인 어워드’ 서비스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레드닷, IDEA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불린다.

수원시 스마트시티 모바일 플랫폼 구축 사업은 수원시 산하 50여개 기관의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든 판 단아래 시각정보와 콘텐츠별 이용 빈도를 빅데이터에 기반해 음성으로 통합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비스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시도될 예정이다.

앞서 단국대와 수원시는 지난 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차례 디자인싱킹을 거쳤고, 지역주민 민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단국대 SW·디자인 융합센터 김태형 센터장은 “수원시의 교통, 문화행사, 복지, 대기환경 등 다양한 정보가 하나로 통합돼 모바일 기반 음성 정보로 서비스되는 점이 혁신의 사례로 평가받았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hys@

시원스쿨 ‘독일어 첫걸음’ 베스트셀러 1위

외국어 교육 전문 기업 시원스쿨은 도서 ‘GO! 독일어 첫걸음’ 베스트셀러 1위 달성을 기념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신규 채널을 오픈해 해당 교재 음원을 무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독일어’ 또는 ‘시원스쿨’을 검색하면 채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도서 주요 콘텐츠를 담은 무료 음원은 언제 어디서나 청취 가능하고, 하루 20분이면 왕초보도 독일어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시원스쿨 측은 설명했다.

‘GO! 독일어 첫걸음’은 독일 현지에서 독일인이 실제 사용하는 표현을 엄선해 말하기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실용성을 높게 특징이다. 이에 에스24 독일어 분야 베스트셀러 6주 연속 1위, 교보문고 5주 1위, 알라딘 1월 월간 베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시원스쿨 독일어 관계자는 “한 권의 책으로도 독일어 독학이 가능하도록 학습자 눈높이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이 베스트셀러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포기하지 않는 하루하루, 인생의 답될 것”

文 대통령, 유한대학교 졸업식 참석

‘독립운동가’ 대학 설립자 소개
3·1절 100주년 연관행보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은 다가올 3·1절 100주년과 연관 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유한대학의 설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독립운동가’인 유일한 박사이기 때문이다. 유 박사에게는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1971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무궁화장·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하 때 유 박사의 삶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기 전, 유 선생 묘역에 다녀왔다. 선생의 꿈은 ‘독립군 사령관’이었다. 조국이 위기에 놓이자 15살 유일한 한인소년병학교에 지원한다. 용기 있는 선택으로 선생은 맹호군 창설 주역이 됐고, 이후 기업을 일으켜 독립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며, 사원들의 것이라는 경영철학은 애국애족 정신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선생의 꿈이 유한대학 설립으로 이어졌다. 졸업생 가슴에는 유 선생의 ‘인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와 봉사 그리고 자유정신’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유 박사의 명언과 함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유 선생 말씀은 ‘마음먹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이다. 청년을 청년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했다.

계속해서 “인생 선배로서 경험을 말하자면, 제 삶을 결정할 중요한 일들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다. 대학입시도, 졸업도, 사법시험도, 변호사도, 대통령 선거도 실패 후에 더 잘 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정답이란 없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

는 문 대통령이 2번째다. 앞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2월 21일 충청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전날인 20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남독하라 1919)’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독립선언서의 첫 문단을 낭독했다.

즉 문 대통령의 ‘독립선언서 캠페인’ 및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 행보는 다가올 ‘3·1절 100주년’ 행보의 일환인 셈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

경희사이버대 내일 석·학사 1462명에 학위수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3일 오전 11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8 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1426명, 석사 36명 등 총 1462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희사이버대는 개교 이래 학사 학위자 2만7681명, 석사 학위자 415명 등 총 2만8096명을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김혜영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의 우수졸업자 시상과 학위 수여, 졸업식사, 졸업생 대표 연설,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보건의료관리학과(구공공서비스경영학과) 이광준 씨가 총장상을, 관광레저항

공 MBA전공 한필규 씨,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김성진 씨, 글로벌한국학전공 김은혜 씨가 각각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한다.

축하공연은 팝페라 그룹 포마스의 ‘위아더챔피언’ 공연과 박요셉의 ‘걱정말아요 그대’ 공연이 펼쳐진다. 포마스 멤버 김용호와 박요셉은 경희대와 경희대 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했다.

본 행사 이후에는 각 학과(전공)별 학위수여식이 단과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동문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는 23일 오전 11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1426명, 석사 36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

30년 전통 신지식인
김찬월가모

"연구한 특허가발"
 가모커트기술이 다릅니다.

접착
 클립
 테이프
NO!

정수리
 밀지않고
특허결속
고정가모

다양한
여성용
신제품
 개발



문의 | 02)747-3500

시정역

8번출구 20m





코스닥협, 코스닥-판교 CEO 간담회
코스닥협회는 지난 20일 코스닥 상장기업 시공테크에서 '2019년 제1차 코스닥-판교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공테크에서 열린 코스닥-판교 CEO 간담회는 시공테크의 사업 설명과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판교 간담회 회장인 황윤은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해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판교·성남 지역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 CEO 및 임원 16명이 참석했다. /코스닥협회



삼양그룹 양영·수당재단, 장학금 수여
삼양그룹의 양영재단·수당재단이 지난 20일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소재 삼양그룹 본사 강당에서 '2019년도 양영·수당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양영재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93명, 수당재단은 대학생 22명 및 고등학생 91명 등 총 206명에게 9억6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삼양그룹



한화생명, 디에셋 자본증권 2018 최고 보험사상 수상
한화생명은 지난 20일 홍콩 주재 아시아 금융 전문지인 디에셋으로부터 '2018년 자본증권 발행부문 아시아 최고 보험사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4월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디에셋은 한화생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국내 보험사 중 최대 규모라는 점과 국내 금융사 중 최저 가산금리인 200bp(1bp=0.01%포인트)로 발행에 성공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최상욱 한화생명 IR파트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IBK캐피탈, 김성태 신임대표이사 선임

IBK캐피탈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김성태 IBK기업은행 전 부행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1989년 IBK기업은행에 입행해 비서실장, 종합기획부장, 소비

자보호그룹장(집행간부) 등을 역임하고 IBK금융그룹 기획·전략을 총괄했다. 김 신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IBK캐피탈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도전과 혁신밖에 없다"며 "회사와 고객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행복나눔, 대학생 봉사단 '써니' 15기 리더 임명
SK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써니) 15기가 올해에도 사회 변화 활동에 나선다. SK행복나눔은 써니 15기 리더그룹 68명을 임명하는 행사가 20일 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14기 리더그룹 65명도 동참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SUNNY 리더그룹은 전국 10개 지역 대학생 3000명을 이끌고 사회변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하는 임무를 맡아 올해 SUNNY 활동을 책임지게 됐다. /SK행복나눔

치아 보철물 교체주기



신태운 원장
치아건강

치아를 상실하거나 외상으로 치아 또는 주위 조직이 손상된 경우 치과 보존 보철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치아가 손상되거나 빠지면 씹는 힘(저작력)이 저하되어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어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데, 보철치료를 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보철치료를 남아 있는 치아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치료방법은 치아의 손상 정도에 따라 크게 인레이(때우기), 크라운(씌우기), 브릿지(걸어서 씌우기)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인레이는 치아가 크게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치료방법으로 부분적으로 본을 떠 모형을 제작한 후 채워주면 된다. 반면 크라운은 손상된 치아 표면

의 면적이 넓고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 부위에 주로 사용하는데 크라운을 씌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치아뿌리에 염증이 생기거나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크라운을 씌워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브릿지는 충치나 외상에 의해 치아가 상실된 경우 양 옆의 치아에 다리를 걸어주는 치료방법으로 치료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브릿지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양쪽 치아를 일부 삭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보철치료는 치아의 손상 정도와 잇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치료방법이 잘못된 경우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거나 염증으로 잇몸뼈까지 녹아내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철물을 씌운 치아나 주변 잇몸이 시린 통증, 입 냄새, 출혈, 치아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철물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금이나 레진과 같은 보철물은 오래 사용하면 변형되거나 마모될 확률

이 높는데, 교체 시기가 지나면 치아 사이가 들뜨고 그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충치 유발 위험이 높아진다. 심하면 장착한 보철물 아래 잇몸 뼈가 녹아내리면 뿌리가 노출되거나 치아를 상실할 수 있어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철물의 교체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보철물의 수명이 7~8년 정도이니 적어도 보철물을 씌운 지 5년이 지나면 치과 정기검진(연 1~2회)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젊은층은 노년층보다 훨씬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치아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연치아와 흡사한 저작력과 지속력을 원한다면 임플란트 치료가 적합하며, 모든 보철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칫솔질은 기본이다.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을 생활화하여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과전문 의·치과사 김태원 원장

농협은행, 사회복지관 찾아 사랑의 도시락 배달

허충회 부회장·리스크관리부 직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연간 봉사협약

NH농협은행은 21일 허충회 부행장을 비롯한 리스크관리부 직원들이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연간 봉사협약을 맺고,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리스크관리부 직원들은 지난 6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마련한 성금으로 자매결연 농촌마을 농산물을 구입해 후원하고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고 있다.

허 부행장은 "어려운 환경에 계신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 드



NH농협은행 허충회 리스크관리부 부회장(첫줄 왼쪽 네번째)과 직원들이 21일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과 봉사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릴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자매결연 마을의 농산물 구입으로 지역 소외 계층에 지원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

성'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세종대학교 前총장 최옥자 목사 '별세'

세종대학교 전 총장인 최옥자 애지현교회 목사(사진)가 20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고인은 남편 주영하 박사(1912~2011)와 함께 여성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세종대 전신인 경성인문학원을 모태로 1947년 서울여자학원을 설립했다. 이후 제3대, 제5대 세종대 총장을 역임했다.



1976년에는 복식학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 한국복식학회를 설립해 복식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했다.

유족은 주경란 세종대 명예교수,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주경은 한국여성크리스천클럽 전 회장, 주장건 대양문화재단 이사장 등 2남 2녀다.

분향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영결예배는 22일 오전 7시 세종대 애지현교회에서 진행된다. 발인은 8시 30분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02)3410-6929.

/한용수 기자 hys@

인사

-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역경제지원관 김창희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문금주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최만림
- ◆한전원자력연료 ◇단장급 △품질안전담당 박학범 ◇실장급 △안전관리실장 설준근 △원자력안전실장 한승훈 ◇부장급 △물자조달부장 최용선 △생산혁신부장 김도인 △품질기술부장 이재완 △품질검증부장 김찬경 △규제협력부장 박찬준 △원자력기술부장 박정석 △원자력안전부장 홍정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이사관(3급) 승진 △성장동력기획과장 방연호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환경에너지세계과장 양순필 △지출혁신과장 강경표
- ◆브릿지경제 ◇승진 △금융증권부 차장 채현주
- ◆아시아타임즈 △상임고문 김태원 △편집국 대기자 류재국

부음

- ▲전성희씨 별세, 김갑용(GYK 텍스 컨설팅 대표) 김수용(의사) 김숙이(시인)씨 모친상, 강정택(건축가)씨 장모상, 최영호(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대표)씨 시모상, 김준우(민변 사무차장·변호사)씨 조모상 = 20일 밤, 대구 수성성당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053-751-5961
- ▲김윤옥씨 별세, 최창환(블록미디어 대표)씨 모

친상, 김미숙씨 시모상, 최동택(대학생)·최한길(대학원생)씨 조모상 = 20일 오후 6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소화원, 02-2227-7566

▲이중훈씨 별세, 이선희(동원푸드 영양사)·이상규(부영부동산 대표)·이용규(스니마 신림점 대표)씨 부친상, 나익석(통일모터스 대표)씨 장인상, 문정선(까망머리미용실 원장)·김경미(스니마 망원점 대표)씨 시부상 = 21일 오전 4시 31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 40분, 02-2227-7547

▲박중선씨 별세, 박재철(코스콤 청산결제업무부차장)씨 부친상 = 20일 오후 5시 59분,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22일 오전 10시, 02-958-9721

▲윤동림(㈜동성실업 회장)씨 별세, 조연순씨 남편상, 윤성범(㈜동성실업 본부장)·윤성필(동성빌딩 대표)·윤성철(동성타워빌딩 대표)·윤근기·윤양미씨 부친상, 이상돈(디에코에너지 연구소장)·오용택(후지제록스 남부OA 대표)씨 장인상 =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2-3010-2262

▲김남순씨 별세, 고광석(㈜미금산업 대표)·고광경·고광숙(㈜아우토빌 대표)씨 모친상, 고재균·고동은·고도연·고현정(서울경제TV 기자)·고명준·고명균씨 조모상 = 21일 오전 7시 20분,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2-2290-9455

스타필드 시티 위례 성공 비결은

‘지역 맞춤형 콘텐츠 통했다’... 주말 평균 3만여명 찾아

오픈 두 달만에 170만명 다녀가
이마트타운 대비 방문객수 3배
문화센터 인기... 고객 호응도 ↑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난 해 12월 18일 오픈한(프리오픈 14일)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오픈 후 두 달이 지난 현재 누적 객수 17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트레이더스와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등 다양한 쇼핑공간이 한 곳에 있는 ‘이마트타운’에 패션과 식음료 매장 등 ‘스타필드’의 장점을 더해 선보인 ‘스타필드 시티 위례’는 주중 평균 1.8만명, 주말 평균 3만여명이 발걸음 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이마트타운(연면적 10만㎡)의 주중 평균 8000명, 주말 평균 1만여명과 비교해 최대 3배 많은 고객(주말 기준)이 몰리는 것이다.

평균 체류시간 역시 ‘스타필드 시티 위례’는 평균 2시간 40분 수준으로 서울지역 대형마트 평균 체류시간인 1시간 7분과 ‘이마트타운’의 평균 체류시간인 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입점 매장별로 살펴보면 아카데미(문화센터)에 대한 고객 호응도가 특히 높았다.

지난 1월 24일부터 시작한 봄 학기(3/2



스타필드 시티 위례.

~5/31 진행) 접수 시작 첫날 1시간만에 4500건이 몰리며 이마트 문화센터 중 가장 높은 접수 건을 기록했으며, 이틀만에 유아·초등 대상 평일 정규강좌는 마감되기도 했다.

완구 매장인 ‘토이킹덤’ 위례점은 고양점과 비교해 평당 매출이 20% 높게 나타났으며, 별마당 키즈의 경우 매일 시간당 100여명의 고객이 방문하며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스타필드 시티의 유아동 관련

MD의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은 위례지역의 9세 이하의 유아동 인구 비중이 17.7%를 차지하는 등 유아동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 주말마다 문화센터 강좌나 공연 등으로 검증된 인기 뮤지컬, 북콘서트 등 다양한 아동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스타필드 시티 위례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입소문 나며 방문객 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는 향후에도 직접



스타필드 시티 위례 토이킹덤.

/신세계 프라퍼티

체험을 통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하 1층 아트트리움에서는 23일 뮤지컬 ‘미술관에 간 율리’를, 24일에는 북콘서트 ‘크레파스는 요술쟁이’를 진행한다.

별마당 키즈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23일 오전 11시 동화책 ‘마법식당’의 작가 김진희씨가 직접 진행하는 구연동화도 준비했다. 또한 매장 지하 1층에서 레고 팝업스토어도 28일까지 운영해 스

타필드 시티를 방문한 가족 단위 고객들의 즐길 거리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강항구 점장은 “스타필드 시티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라이프스타일 센터’로써, 아동 인구가 많은 위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며 “특히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스타필드 시티 내에서 쇼핑을 포함해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독보적 차별화로 ‘1000억 브랜드’ 등극

CJ제일제당

햇반컵반, 출시후 연매출 5배 이상 ↑
비비고 국물요리 10배 가까운 성장세



햇반컵반(위)과 비비고 국물요리.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햇반컵반과 비비고 국물요리가 지난해 각각 1000억원대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4월 출시된 햇반컵반은 첫해 190억원 매출에서 2016년 520억, 2017년 820억, 2018년 1050억으로 3년 9개월 만에 연매출이 5배 이상 늘었다.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닐슨 데이터 기준 70%를 차지했다. 비비고 국물요리는 2016년 6월 출시 후 매출 140억원에서 2017년 860억, 2018년 1280억원으로 30여개월만에 10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경쟁업체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두 제품이 독보적인 맛 품질 차별화로 HMR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높아진 소비자 입맛을 만족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면서도 기존 상온 레토르트 제품에 비해 원물의 식감이 나 맛을 제대로 구현하고 합리적 가격대

로 제대로 된 한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점에서 폭발적 호응을 얻은 것이다.

두 제품은 CJ제일제당만의 독보적인 HMR 상온 기술력이 핵심으로 작용했다. 햇반컵반은 20개가 넘는 메뉴 각각의 특성에 맞춰 고온살균에도 나물 등 각 원재료들의 아삭한 식감과 고유 색감을 살리고, 쉽게 으개지는 두부 등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는 진화된 상온화 살균기술을 제품에 적용했다.

비비고 국물요리 역시 15개 메뉴에 대해 각각 고온살균 후에도 원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리는 기술을 적용해, 직접 끓여서 우려낸 육수에 풍성한 원물이 담

긴 정성스러운 가정식의 맛 품질을 구현해냈다.

이처럼 차별화된 R&D 기술력 기반의 제품력과 최신 트렌드를 신속하게 읽어낸 마케팅 덕분이다. 다양한 연령층의 충성고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햇반컵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 1인 가구와 젊은층에 인기 있는 메뉴, 성인입맛 메뉴 등 제각기 혼밥과 야식, 캠핑, 여행 등을 책임지는 제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비고 국물요리는 간편하면서도 빠르게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전업주부나 맞벌이 부부 없이 특히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올해도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햇반컵반은 1월 매출이 전년 대비 26% 성장했고, 비비고 국물요리는 전년 대비 50% 가량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주는 CJ제일제당 HMR상온마케팅 담당 상무는 “HMR의 일상식화와 함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도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상온 HMR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프리미엄 셔츠 브랜드 ‘카미치에’ 론칭

신세계백화점, 맞춤복 시장 도전장

신세계백화점이 맞춤복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다. 신세계백화점의 대표 편집숍 분더샵이 프리미엄 맞춤 셔츠 브랜드 ‘카미치에’를 선보이는 것.

이탈리아어로 ‘셔츠’를 의미하는 카미치에는 좋은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백화점 남성 고객들을 겨냥해 고객을 가장 잘 아는 백화점이 선보이는 첫 맞춤 의류 브랜드이다.

분더샵은 엄선한 프리미엄 원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맞춤 시뮬레이션 서비스, 6가지의 특별 제작 공법 등 차별화를 앞세워 맞춤복 시장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분더샵만의 맞춤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측정시의 사이즈와 실제 제품 간의 오차를 줄였다.

맞춤 셔츠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신체 사이즈 측정 이후 받는 상품의 대부분이 고객이 생각했던 사이즈가 아닌 점에 착안해 54개의 샘플 상품을 고객이 시험 착용함으로써 고객이 생각하



카미치에 매장 전경. /신세계백화점

는 사이즈에 가장 가까운 상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체친화적인 특별 제작 공법을 가미해 셔츠를 입는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어깨와 소매를 잇는 봉제선이 겨드랑이에 위치해 땀이 많은 여름철이나 평상시에 활동하기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고자 겨드랑이 이음새를 비틀어 봉제해 마찰을 최소화 시켰으며 수평 형태의 단추 구멍을 도입해 복부 주변 단추 풀림을 방지하기도 했다. 셔츠의 품질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프리미엄 셔츠를 선보이고자 원단부터 차별성을 두었다. /신원선 기자

유통 단신

롯데마트, 테이블웨어 ‘그리너리’ 선보

롯데마트가 고객 참여 공모전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에 최적화된 홈 패브릭과 테이블웨어 ‘그리너리(Greenery)’ 시리즈를 선보인다.

그리너리 시리즈는 지난 해 10월 롯데마트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제2회 롯데마트 테이블웨어 상품개발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자기자신 화분 패턴이 특징이며, 롯데마트는 식기, 도마를 비롯해 앞치마, 쿠션 등 25종의 상품으로 구성됐다.

‘롯데마트 테이블웨어 상품개발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상품은 고객 스스로가 고객의 눈높이에서 상품 개발 과정 초기부터 참여해 형태, 패턴, 규격 등을 가다듬게 제안한 상품이다. 또한, 롯데마트의 우수 PB 제조사와의 협업으로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 가격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춰 고객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너리 시리즈 상품 25종은 5월 봄 시즌동안 롯데마트 전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테이블웨어 공모전 수상작 그리너리 시리즈./롯데쇼핑

롯데제과-멕시카나

치토스 치킨 2탄 콘스프맷

롯데제과는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와 손잡고 ‘치토스 치킨 2탄 콘스프맷’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치토스 치킨 2탄 콘스프맷’은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위에 달콤하면서 고소한 콘스프맷 시즈닝 가루를 뿌려 완성했다. 이번 출시된 ‘치토스 치킨 2탄 콘스프맷’은 2017년 9월 출시된 ‘치토스 치킨’에 이은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 제품이다. /박인용 기자

맥도날드

신제품 ‘에그 불고기 버거’

맥도날드는 행복의 나라 메뉴 신제품 ‘에그 불고기 버거’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제품 에그 불고기 버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맥도날드의 베스트 셀러인 불고기 버거에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식재료인 계란을 더했다.



/박인용 기자

소액주주 힘 싣는 '전자투표' 제약·바이오사도 동참

코스닥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도입 유한양행·종근당 등 대형사 아직 사실상 참여 높지 않아 영향 미미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사들도 전자투표제 도입에 동참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신신제약은 지난 15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맺고 3월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바이오코아와 비상장사인 바이오스펙트럼, 씨비엔바이오텍 등도 올해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됐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들

은 일찌감치 전자투표제 도입을 마쳤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코오롱생명과학,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등 기업은 지난 2015년부터 주주 전자투표제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형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둔한 상태다. 보령제약이 제약업계 중 가장 빠른 2015년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GC녹십자와 대웅제약,

광동제약, JW중외제약이 2017년 주총 전에 전자투표제 계약을 마쳤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제약 매출 1위 기업인 유한양행은 아직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종근당바이오만 2017년 전자투표제를 도입했

을 뿐 아직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한독, 동화약품 등도 아직이다.

소액투자자 수가 많은 바이오 대장주들도 움직임이 없다. 현재 코스피시장 시총 4위에 올라있는 셀트리온의 경우, 계열사인 셀트리온제약만 지난 2016년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전자투표제 도입 계

획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삼성전자의 전자투표제 도입이 가시화되면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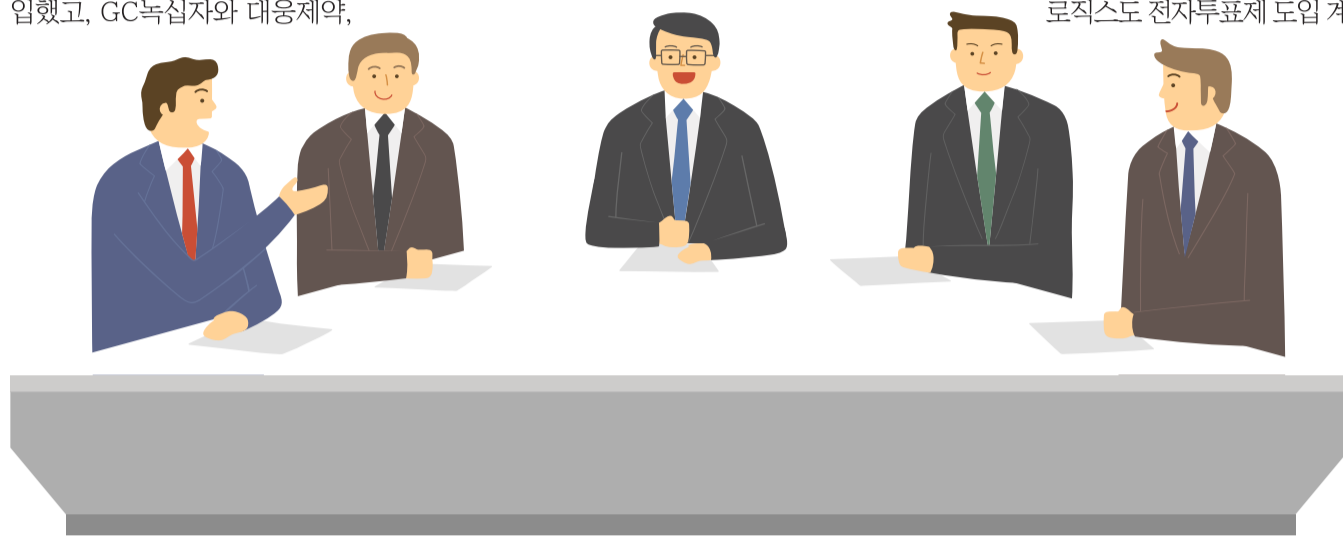
주요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 전자투표제의 활용이 미미한 이유가 가장 크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를 일찍 도입했지만 도입 첫째 이후 주총에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전자투표를 시행해도 사실상 주주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도입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소액투자자들이 몰리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주의 경우 주가 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소액주주들이 주총 안건을 부결시키면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주주들에게 좋은 제도일 뿐 기업측에는 부담이 더 큰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 시술 2600건 돌파

코오롱생명과학과 한국메디파마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 (INVOSA-K·사진)의 시술건수가 2600건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인보사-케이는 2018년 12월 기준, 시술건수 2600건을 기록했으며, 매일 200건 이상의 시술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인보사-케이를 투여할 수 있는 유전자치료기관(병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인보사-케이 출시 전 58곳에 불과하던 유전자치료기관이 현재 898여 곳으로 늘었다. 인보사-케이의 환자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의 일본 라이선스 및 중국 하이난성, 홍콩, 마카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수출 계약을 통해 약 20여 개국에 1조 원의 해외 수출도 진행 중이다. 또 미국에서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임상 3상 첫 환자 시술을 진행했다. 미국 주요 병원이 포함된 60개 임상기관에서 1020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케이"는 혁신 신약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 20년 노력의 결정체"라며 "새로운 골관절염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 치료제로서, 인보사-케이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식약처, 신학기 맞아 급식소 등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까지 이어진다.

중점 점검대상은 지난 3년(2016~2018년)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며,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기구 등의 세척, 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성인 야간노 원인파 치료 건강강좌

이대서울병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지하 2층 중강당에서 야간노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개강좌는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사진)가 강사로 나서 성인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는 야간노

의 원인과 종류별 치료법, 일상생활에서 예방하고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인테리어·맑은 공기,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KCC·한샘·경동나비엔 '코리아 빌드 박람회'

봄철 맞아 청정환기 신제품 선택 실제 제품 설치한 체험존도 마련

KCC와 한샘, 경동나비엔이 20일 시작해 24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아빌드 박람회'에서 제품을 뽐내면서 봄철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21일 관련회사에 따르면 KCC는 이번 박람회에서 2019년 홈씨씨인테리어 신규패키지 3종인 ▲오가닉(Organic) ▲소프트(Soft) ▲트렌디(Trendy)를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 홈씨씨인테리어 부스를 방문한 고객은 신규 패키지 3종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하이브리드 환기장치와 미세먼지 방충망 등을 포함해 KCC의 다양한 창조 제품을 이용한 인테리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실물 제품과 함께 단면도를 볼 수 있는 샘플 제품까지 함께 배치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동식 구경하는 집'이라는 콘셉트로 차안에 작은 창조 전시장이 마련된 '왕바디 카'는 전시 부스 바로 앞에서 양 날개를 활짝 열고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홈씨씨인테리어는 전시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왕바디 카를 이용해 전 시장을 찾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전국의 아파트 등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KCC는 전시 기간 내 홈씨씨인테리어 부스를 방문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한샘은 '2019 봄여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발표회'를 진행했다. 트렌드 주제를 '가족의 개성과 취향이 담긴 집'으로 정하고 박람회장에서는 신혼, 영유아·초등·중고등 자녀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를 우리나라 대표 아파트 평면에 구현해 놓은 모델하우스 네 채를 선보였다.



한샘은 이번 코리아 빌드 박람회에서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72부스(200평)의 전시관을 마련해 부엌, 가구, 생활용품, 건자재를 총 망라한 토탈 홈 인테리어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코리아빌드 박람회'에 마련된 KCC의 홈씨씨인테리어 부스 전경.



코리아빌드 박람회에 마련된 경동나비엔 부스.

모델하우스에선 한샘이 제안하는 공간패키지 상품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닥재, 벽지, 천정, 도어, 커튼, 조명, 가구, 소품, 가전기구에 이르기까지 주택에 관한 모든 인테리어 아이템을 단품이 아닌 공간 패키지로 윈스탑으로 제공한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집안 곳곳에 적용된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 한샘IoT 플랫폼에 연결된 스마트모션베드, 조명 등 한샘 제품을 한샘홈 앱으로 제어할 수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간단한 음성 제어도 가능하다.

경동나비엔은 이번 박람회서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나비엔 하우스'를 콘셉트로 주거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환경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이 참가하는 전시회 성격을 고려해 프리미엄보

일러 NCB900과 나비엔 에어원 청정환기 등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형 부스도 마련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나비엔 에어원 청정환기'다. 이 제품은 기존의 환기시스템과, 공기청정기의 장점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다. 공기청정기처럼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청정기능으로 정화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호흡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환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경동나비엔은 청정환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5단계 청정시스템의 기능을 각각 소개했다. 또 관람객들이 직접 나비엔 에어원을 통해 디자인된 쾌적한 공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실제 제품을 설치한 청정환기존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가성비 甲 다마스·라보 소상공인에 꼭 필요”

대출과 無知

인터뷰

다마스·라보 판매왕 송병기 이사

퀵·배달대행 운송업체에서 인기 자영업 업선 맞춰 새롭게 제작도 2월 가격할인·무이자할부 혜택



19일 서울 종로의 웨보레 대리점에서 만난 송병기 이사가 다마스와 라보와의 남다른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국내 유일 경사용차인 다마스·라보가 퀵·배달대행 운송업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한 직원들이 있었다. 바로 다마스·라보 판매왕으로 이름을 올린 송병기 이사가 그 중 한명이다.

지난 19일 한국지엠 웨보레 종로대리점에서 만난 송 이사는 생계형 화물 운송업 자영업자들의 해결사 역할을 맡아 분주한 모습이었다.

◆2009년 다마스·라보 첫 만남

송 이사는 2009년 44세의 나이로 늦깎이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당시에는 한국지엠이 아닌 대우자판 시절이다. 회사에 입사해 교육을 받고 처음 판매한 차가 다마스였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다마스·라보와 운명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내 유일의 경사용차인 다마스·라보의 인연으로 다양한 판매왕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일을 시작한지 1년 만인 2010년 지엠대우 리테일러 판매 1위, 2011년 웨보레 최우수 판매왕, 2012년, 2013년에도 판매왕 타이틀을 이어갔다.

그는 “다마스·라보는 국내 유일의 경사용차라는 점과 취급특성 등 다양한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료 역시 저렴한 LPG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며 “특

히 주행거리가 많은 화물 운송업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차량 가격도 저렴한 것이 주요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경사용차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면 굳이 송 이사가에게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차량 계약부터 고객이 요구한 옵션에 맞춰 새롭게 제작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차량을 판매를 통해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꾸준히 연락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

◆단종 위기서 생산 연장

한국의 최장수 모델인 다마스·라보는 누적 대수 판매량이 지난해 말 기준 37만 4657대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

러나 지난 2013년 강화된 안전 및 환경 기술을 부합하지 못하며 단종 위기까지 겪었지만 전국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직접 나서 규제 유예를 청원한 덕에 안전 및 환경 규제 적용을 유예 받고 다시 판매가 재개된 바 있다.

송 이사는 “단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영업자들이 먼저 차량 생산을 더해주면 안되냐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며 “2~3년 정도면 벌써 30만km를 넘게 주행하기 때문에 교체주기도 빨라 생계형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에게는 1000만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마스·라보는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이 꼽힌다. 다마스 밴모델의 경우 450kg, 라보는 55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20kg 쌀 포대를 기준으로 각각 22개, 27개를 실을 수 있는 적재 용량이다.

이같은 장점과 소상공인들의 수요 증가 등으로 다마스·라보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면서 2021년까지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 같다”며 “소상공인들이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된 차임에도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OBD(배기가스자 진단장치)단자 등 안전사항을 추가해 생산해준 한국지엠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은 2월 한 달간 다마스·라보 구입 고객에게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 주 고객층인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초기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만원의 행복’ 할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지수첩

나 유리 (파이낸스&마켓부)

우리는 쉬움과 어려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쉽다’라는 사전적 의미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다’처럼 쉽고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물(처리과정)이 있나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듯 하다. 마치 ‘35+5’라는 계산식이 ‘35+50’보다 계산과정을 덜 거쳐 쉬운 것 처럼 말이다.

청년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평범하던 그들이 빚더미에 오른 이유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다. 쉽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주변 ATM에 넣어 카드론(단기소액대출)을 하거나, TV·인터넷으로 쉽게 접했던 대부업체 대출을 신용조회 한번만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들은 대다수 예·적금을 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회에 나오기 전 그들은 은행을 예·적금을 하는 곳이지 대출하는 곳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저축은행-대부업-사금융 순으로 높아지는지도,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이

용했을 때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단지 돈을 얻는데 방해물(대출가능기준 등)이 있나 없냐만 판단해 쉬운 길을 택할 뿐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10%대 대출을 제공하고, 빚더미에 오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것이다. 특화된 대출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 유통 기회를 늘리고, 채무조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끔 해주겠다는 거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 원인과 결과, 현상과 당위를 혼동해선 안 된다. 저신용 저소득자들이 증가하고 빚더미에 오른 채무자가 많아진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원방안을 두고 모른 것을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무지의 정의는 ‘의심하지 않기’다. 쉬운 대출상품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지일 뿐이다. 사회에 나오기 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에는 그에 맞는 높은 금리와 신용점수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교육이 필요할 때다. 쉬운 길은 왜 쉽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줘야 한다.

/yu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 48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60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는 날. 72년생 붉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84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 하지만 오늘은 현상유지가 답이다.
- 49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고 찾아보는 것이 좋다. 7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굳은 의지와 절제가 필요. 85년생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
- 5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 62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자식에게 기쁜 일이 있다. 74년생 마음은 상하고 몸은 힘드니 재물은 들어온다. 86년생 하수구가 막혔다면 내 건강도 체크할 것.
- 51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 63년생 지인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75년생 귀인을 만나면 단기투자는 관철다. 87년생 갑자기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먼저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 52년생** 새는 날아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64년생 위기를 겪으면 내 편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다. 76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하자. 88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 53년생** 운이 쇠퇴하는 시기이니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말자. 6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77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89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결혼은 계약 관계가 될 뻔.

- 54년생**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66년생 바다 건너 귀인이 찾아오니 즐거운 하루. 78년생 초지일관 열정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 90년생 상대는 내 연인 전에 상대방의 자식임을 인식해보라.
- 55년생** 도움을 준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동분 서주 바쁘지만 하고 성과는 적다. 79년생 아무리 억울해도 따지거나 언쟁하지 마라. 91년생 남이 칭찬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 56년생** 베풀 능력에 있을 때 최대한 베풀어라. 68년생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루. 80년생 노력한 만큼 소득도 따르니 행복. 92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 57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리고 오는 격. 6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81년생 까마귀 꿈은 행운을 가져온다. 93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좋은 날.
- 58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70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일을 잘 풀리게 한다. 82년생 고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9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 59년생** 형제 원망 말고년부터 온고지신(溫故知新)하라. 71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83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된다. 95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김상회의四季 풍경소리의 갤러리

마음에 두어왔던 실천목록들 중 하나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서울 서대문 종근당 뒤편 오목한 집터에 자리를 잡은 지 십수년 만에 월광사 풍경소리가 새롭게 작은 등지를 틀게 되었다. 아주 작지만 다시 터를 갖게 되는 작은 회향으로 ‘풍경소리 갤러리’를 시작하려는 것이다. 강의나 그림뿐 아니라 때로는 밥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커피는 재료비에 준하는 값은 받을 테지만 말 그대로 실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용되는 쌀은 품질 좋은 일반미일 것이며 제공되는 반찬의 식재료는 소박한 식자재로 할 예정이다. 당초 생각은 점심시간 무료급식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정작 필자가 고마움을 나누고 싶은 서민 식당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신도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 일리가 있기에 밥의 정성을 나누는 것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대신 직장인들의 지친 심신을 힐 수 있는 작은 갤러리 개념으로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보려 한다. 지역사회까지는 아닐지라도 사무실 ‘풍경소리’와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작은 회향을 해야 할 때며 그 회향의 방법은 무엇보다 먹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된 것이다. 이는 필자의 부모님께서 매일 매일 실천하셨던 일들이었다. 때가 아니어도 누가 집에 찾아오면 반드시 식사를 챙겨야 한다고, 물론 아버지 생전 당시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적잖았던 시절이기도 했던지라 아버지는 항상 사람들이 배 든든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식사는 하셨습니까?”가 인사였을 정도니 말이다. 지금은 끼니를 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보통 수준의 한 끼 식사 값이 칠팔천 원은 되는 세상이다. 쌀이 좋으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훌륭한 요기가 된다. 때가 되면 기름이 잘 잘 흐르는 좋은 쌀로 지은 밥 한 그릇에 그리고 배추로 만든 김치와 찬 한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회향의 의미를 담은 한 끼 식사 그윽한 차와 커피와 이야기가 있는 곳 월광사 풍경소리가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7	8			
		3		6			1	
4	5			1	9	7		
	7	2			3	5		
8			9					
	4	9	5			7	8	
					9			2
		1	3			6	5	

	4				7			9
		5		4	8		1	
		1						
4	3		1	9			5	8
		8			2		4	
		7			5			
1			5	6		3	2	
	6				1			4
7	9				4			

스도쿠 정답								
6	5	9	7	4	8	1	8	2
7	6	1	6	8	9	4	5	5
5	8	4	2	1	5	6	7	9
4	2	8	9	5	6	7	1	8
8	9	5	8	7	1	2	4	6
1	6	7	8	2	4	5	9	6
9	4	6	1	8	2	8	5	7
7	1	2	5	9	8	5	6	4
5	8	4	6	7	9	2	1	4
5	9	1	7	8	6	2	4	2
7	6	8	1	2	4	8	9	5
4	2	8	6	9	5	7	8	1
9	8	2	5	8	7	4	1	6
1	7	6	2	4	8	5	9	9
8	5	4	9	6	1	2	5	7
2	4	7	8	5	9	1	6	8
5	1	9	8	7	6	5	4	2
6	8	5	4	1	2	9	7	8

문제 제공=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49호

오렌지와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렌지로도 와인을 만들어요?”
오렌지와인이라고 내뱉을 때 많은 이들이 보이는 첫 반응이다.

정답은 ‘노(NO)’. 오렌지로 만든 와인도 아니고, 스파클링와인에 오렌지주스를 섞은 미모사 카테일도 아니다. 오렌지와인 역시 포도로 만든 사전적 의미의 그 와인이 맞다. 화이트와인의 일종이다.

오렌지와인이라 말은 색깔 때문이다. 우리가 색깔로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오렌지와인이라 명칭 역시 너무나 당연하다.

오늘날 화이트 와인이 투명한 색을 내는 것은 청포도만 쓰기 때문이 아니다. 포도품종을 떠나 껍질, 씨 등 색깔을 낼 수 있는 것들은 버리고즙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즙을 껍질 등과 접촉해 발효시키면 오렌지색 와인을 얻을 수 있다. 색깔은 밝은 노란색부터 짙은 호박색까지 다양하다. 접촉기간은 짧게는 몇 일부터 몇 달, 몇 년이 계속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오렌지와인은 레드와인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화이트와인, 하이



/www.doctorwine.it 사이트 캡처

브리드 와인인 셴이다. 맛과 향도 딱 그렇다. 복합적이다.

열대와일부터 너트와 오렌지 껍질의 향도 지니고 있다. 포도껍질은 오렌지와인의 색을 진하게 만들었지만 타닌으로 맛에 무게감도 실어줬다. 우리가 레드와인을 마실 때 뽕거나 치아 사이가 뭐가 낀 것같이 뻑뻑하게 느끼게 만드는게 바로 타닌이다. 만약 눈을 감고 먹는다면 오렌지와인과 레드와인을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다.

오렌지와인은 시칠리아나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주로 많이 생산되는 곳은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등이다. 내추럴와인과 함께 요즘 와인업계 대세라지만 오렌지와인은 여전히 흔한 와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것은 한식과의 궁합이 좋기 때문이다.

보통 와인과 같이 먹기 힘들다는 맛과 향이 강한 음식도 오렌지와인과는 어울린다. 카레를 비롯해 모로코 음식, 에티

오피아 요리는 물론 김치같은 매운 한식, 낫토 등 발효식품이 많은 일본음식과 먹어도 훌륭하다. 타닌 등의 성분과 너트향 등은 오렌지와인을 소고기부터 생선까지 모두 어울릴 수 있게 해줬다.

새로운 트렌드처럼 보이지만 오렌지와인은 역사가 오래됐다. 내추럴와인과 마찬가지로 옛날 옛적부터 원래 먹던 와인이다. 다른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온도조절 등 다른 개입없이 레드와인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껍질 등에 접촉시키면 자연스런 오렌지색이 우러난다.

마스터 오브 와인(MW)이자 책 ‘내추럴와인’ 저자인 이자벨 르주롱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에서 사람들의 잔에 담긴 화이트 와인이 왜 오늘날의 화이트와인처럼 투명하지 않고 오렌지색으로 보이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냐”며 “빛 때문도, 그림이 오래됐기 때문도 아니라 그 시대의 미켈란젤로와 같은 화가들은 정말로 오렌지와인을 마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smahn1@metroseoul.co.kr



‘VIB족’ 공략 박차

특급호텔, 영유아 패키지 인기 ↑

특급호텔들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자녀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부모, 일명 ‘VIB(Very Important Baby)족’을 공략한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그랜드 힐튼 서울을 비롯한 호텔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패키지에 대한 좋은 반응이 이어지면서 일부 호텔들은 패키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VIB 패키지’로 불리는 호텔 패키지들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니즈를 적극 충족시키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야외 활동에 제약이 생긴 가족 고객들이 실내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호텔 패키지별 콘셉트도 다양각색이라 고객들의 선택 폭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VIB 패키지’의 키워드는 힐링, 그리고 체험이다. 풍성한 기프트 박스가 제공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이하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의 ‘키캉스 패키지’는 고객들의 좋은 반응이 이어지면서 연장 운영을 확정했다. 당초 3월 31일까지였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패키지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세심한 구성이 눈에 띈다. 객실 1박, 피트니스 및 수영장 무료 이용권이 포함돼 있고, 호텔 식음료 바우처 3만 원권 1매, 호텔 시그니처 인형 1개, 객실 키즈 슬리퍼 1세트, 키즈존 무료 이용 등이 함께 구성됐다. 유럽의 베이비 스킨케어 브랜드 ‘무스텔라’의 키즈 기프트 박스도 제공된다.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관계자는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는 취사 시설이 가능한 레지던스 객실과 키즈존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반응이 좋은 편이다. 작년 스팟성으로 진행했던 키캉스 패키지가 반응이 좋아 올해에 더욱 다채로운 구성으로 키캉스 패키지를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랜드 힐튼 서울도 ‘키캉스 패키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선보인다. 객실 1박과 조식 3인, 그리고 다채로운 구성의 기프트가 제공된다. 패키지 구매 고객은 키즈풀을 갖춘 대형 실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 시설을 무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의 ‘키캉스 패키지’.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료로 이용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도심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다. ‘키캉스 패키지’의 기프트는 유아동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퓨토’의 스킨케어 3종 세트와 빅키즈 색연필 세트, 메디컬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글로덤’의 마스크팩, 그랜드 힐튼 서울의 시그니처 레스토랑인 ‘뷔페 레스토랑’ 20% 할인권 등이 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유아도 함께 즐기는 호텔에서의 바캉스 ‘유캉스 패키지’를 진행한다. 남산의 풍광을 배경으로 가족끼리 오붓한 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아이의 물놀이를 돕는 영국 ‘스위마바 해피세트’가 제공되며, 유아용 목욕브와 수영 팬티, 러버덕, 온도계 등이 포함돼 있다. 객실 1박, 조식 2인, 피트니스 및 실내 수영장 무료 이용이 포함됐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위한 ‘디어 베이비 패키지’를 오는 6월 10일까지 선보인다. 일반 객실보다 여유로운 스튜디오형 객실인 프리미어룸에 약 17종 이상의 유아용품이 비치되며, 패키지 고객에게는 스웨덴 왕실의 애착인형으로 유명한 ‘테디폼 빠니에’의 알프 오감발달 인형 등이 포함된 VIB 기프트가 제공된다.

위커힐 호텔앤리조트(이하 위커힐)는 체험 활동을 포함한 패키지로 가족 고객을 겨냥했다. 위커힐의 ‘스트로베리 피킹(Strawberry Picking)’ 체험 패키지는 총 3종이다. 각각의 패키지를 이용하면 호텔 1박과 함께 남양주의 유기농 딸기 농장에서 딸기 채집, 딸기잼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베리 굿데이 I’ 패키지는 그랜드 딜럭스 룸 1박, ‘베리 굿데이 II’ 패키지는 그랜드 클럽 스위트룸 1박과 클럽 라운지 조식 및 해피 아워 이용을 포함한다. 비스타 위커힐 서울에서 선보이는 ‘스트로베리 에피소드’ 패키지는 비스타 딜럭스 룸 1박과 유기농 딸기 농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민서 기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유캉스 패키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올 봄 트렌드 ‘뉴 페미닌룩’ 당당하게 여성성 드러낸다

여성스러운 실루엣에 편안함 강조
시크함·당당함 매력적 무드 연출

올해 여성복 시장은 ‘나다움’을 찾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페미닌(Feminine)’ 스타일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해 패션계에서는 스트리트 패션과 오버사이즈 룩 등 과장된 실루엣의 스타일이 주목 받았다. 반면 올해는 사회적으로 일과 생활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편안함을 강조한 ‘페미닌 룩’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여성복 브랜드 구호(KUHO)는 페미닌한 아이템을 포인트로 활용한 새로운 관점의 페미닌 룩을 제안했다. 구호의 모델 정은채는 남성적인 어깨 라인을 강조한 ‘벨티드 테일러드

재킷’에 잔잔한 주름이 부드럽게 흐르는 ‘언벨런스 플리즈 스커트’를 착용해 당당하고 시크한 매력을 드러냈다.

토리버치(Tory Burch)는 허리를 강조한 실루엣에 클래식한 디테일을 재해석한 페미닌 무드의 드레스를 출시했다. 토리버치의 ‘메쉬 스타 드레스’는 드레스 전체에 잔잔한 주름을 적용해 하늘하늘한 느낌을 살리는 한편, 밴딩 처리로 허리 곡선을 강조했다. 또, 과거 헐리우드 파티룩을 연상시키는 매쉬 소재 위에 반짝이는 벨 프리트로 레트로 감성을 더했다.

구호의 김현정 디자인 실장은 “패션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도 자신다움을 찾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발현되면서 올해는 특히 페미닌하고 유연한 스타일링이 보여지고 있다”며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기존 페



구호의 ‘언벨런스 플리즈 스커트’. /구호

미닌 룩에서 벗어나 매니시한 아이템과의 조합으로 시크함과 당당함이 매력적인 페미닌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GS리테일, 독립운동 ‘역사 알리기’ 앞장

GS리테일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독립 운동 역사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GS리테일은 전국의 1만3500여 소매점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를 핵심 테마로 한 국가보훈처의 역사 알리기 사업을 돕는다고 21일 밝혔다.

GS리테일과 보훈처가 함께하는 역사 알리기 활동은 연중 다양한 월별 테마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 GS수퍼마켓, 칼라블라, GS프레시, 각종 공식 SNS 채널 등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는 온·오프라인의 고객 접점 채널을 총 동원한다.

먼저 편의점 GS25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 51인의 스티커를 제작해 취급 중인 도시락 전상품(20종)에 부착한다. 스티커 캠페인은 3·1절까지 이어지며, GS수퍼마켓과 GS리테일의 밀키트 브랜드 ‘심플리쿡’도 동참한다.

GS리테일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알리



는 동영상 제작해 지하철 3·9호선, GS TV, 주요 공식 SNS 채널 등에 공개하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김민서 기자



무자비한 힘이
나타났다!

통다리살 치킨버거

T-REX

티렉스 ₩3,500

New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광주로 예술 여행하러 떠나요” 관광브랜드 발굴 시동

여러 분야 전문가와 추진협회의
예향광주 대표 ‘관광 브랜드’ 개발
4대 권역 관련 체류시간 증대 제시

광주광역시와 광주만의 차별화된 예술
관광 브랜드 상품 발굴에 나서는 등 ‘예술
관광도시’ 만들기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21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유관기
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관광
도시 광주’ 추진협회의를 열고 예술관광
브랜드화 사업 5대 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1995년부터 시작한 광
주비엔날레의 명성과 2015년 들어선 국
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예술분야 성숙
에 발 맞춰 예술여행을 예향광주의 정체
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관광 브랜드 상품
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술여행도시 광주’
브랜드를 개발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관광브랜드에



적합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관광
콘텐츠 공급 경로 확
대, 도시개발과 연계
한 도시공간 전반 예술코드 접목, 주민친
화형 착지형 상품 운영 등의 내용으로 추
진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술관광 브랜
드화 사업 5대 전략으로 ▲예술 관광 현
장 역량 강화 ▲4대 권역 제안(비엔날레
권-일상예술, 아시아문화전당권-동시대

예술, 양림사직권-근대예술, 무등산
권-전통예술)과 권역별 콘텐츠 및 인프
라 확대 ▲4대 권역간 연계를 통한 관광
객 방문 규모와 체류시간 증대 ▲도시공
간 전반을 예술 코드와 접목 ▲예술관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
했다.

또 10대 과제로 ▲예술 관광 전문 인력

육성 및 창업, 일자리 확대 ▲예술 창작자
및 문화공간 관광수요태세 강화 ▲기존
자원 및 콘텐츠, 문화공간의 경쟁력 강화
▲신규 시설 및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확
대 ▲연계 운영 시스템 및 패키지 구축 ▲
예술 관광 거점 및 자원 정보 확산 시스템
구축 ▲공공 및 민간시설의 예술 공간화
촉진 ▲장소성 기반 광주다운 스토리의
예술적 접목 ▲예술 관광 지원 및 협력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 ▲예술관광 활성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제도 마련 등을 마련
했다.

이와 함께 광주예술가와 지역 청년 여
행기획자를 연결해 관광객들이 반일 또
는 하루 정도 함께하는 ‘광주 예술인과의
여행’, 지역내 예술여행 거점에서 외국인
들이 1박 2일 이상 묵을 수 있는 ‘아트스
테이’ 프로그램, 지난해 여행주간에 운영
했던 우수 프로그램 중 선별해 만든 ‘광주
예술유랑’ 등과 같은 다채로운 예술여행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청년 기획자의 예술여행상품은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019광주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광주를 찾는 국
내외 관광객과 전 세계 209개국 1만5000
여명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판매·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관광협회 등 지역관광업계와 연
계를 통해 국제행사가 관광분야와 결합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예술여행도시 광주’ 브랜드 발굴
이 광주가 보유한 매력적인 예술코드를
음악, 현대문학, 영화, 공연예술 뿐 아니
라 고미술품, 건축물 등 도시 전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항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최근 특
수목적관광과 같은 대안관광이 주목받고
있어 새로운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지
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며 “올해는 광주가 지닌 예술분
야 저력을 지역의 대표 관광브랜드화하
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규모
행사와 접목해 광주 관광이 도약하는 원
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해조류센터 옥외 갤러리.

“청정바다 완도의 관광지, 한눈에!”

해조류센터 옥외 갤러리에 사진 전시

완도군은 해조류센터 활성화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해조류센터 옥외 갤
러리에 완도 관광지 사진 60점을 전시하
여 봄나들이 관람객 맞이에 나선다고 21
일 밝혔다.

지나해 11월부터 전시해 온 학생 백일
장 입상 작품과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경 사진 60점은 내리고 그 자리를
관광지 사진으로 교체했다.

완도 관광지 사진은 ‘2018년도 추억의
사진첩’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이며 주

요 관광지와 주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수
준 높은 작품으로 구성됐다.

작품 중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금당팔
경 모습과 가고 싶은 섬 소안도와 생일도
등 도서 지역 전경이 그대로 액자 속에 옮겨
져 있다.

사진에는 관광지 위치와 생활상에 대
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군은 관광지 사진을 오는 4월까
지 전시하고 가정의 달인 5월부터는 화
목한 가정을 주제로 한 가족사진을 수집
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전남 완도=이제진 기자 wando1106@

울산시, 우수 中企 글로벌 수출길 연다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해외 마케팅 4년간 최대 2억 지원 등

울산시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해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21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이 사
업은 우수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 기업으
로 육성해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
혔다.

신청대상 기업은 매출액 100억~1,000
억 원 미만, 직·간접 수출액 500만 달러 이
상인 중소기업과 매출액 50억~1,000억
원 미만, 직·간접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인 혁신형 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
즈 인증 유효기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마
케팅 프로그램 4년간 최대 2억 원과 지역
자율지원프로그램 3년 최대 6,000만 원이
지원되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이 부여된다.



울산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해 우수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해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난 14일 열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

또한 SGI 서울보증, 신한은행 등 7개
민간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증 보험료
할인 및 금융우대 등 11개 시책이 연계 지
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중소기업의 성
장 토대 마련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
성사업을 비롯해 신기술 이전을 접목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축적

되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8일
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사업과 관련
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최인락 기자 remark@

오늘의 날씨

2월 22일 (금)
음력 : 1월 18일

수도권 날씨
-1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7:14 | 해질 / 18:18

연천 -7/9, 동두천 -5/11, 가평 -6/11, 파주 -7/9, 서울 -1/8, 양평 -5/10, 인천 -2/7, 수원 -1/8, 용인 -1/8, 평택 -4/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기도, 독립·예술영화 제작하면 1억 지원

경기도가 다양성 영화 제작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다양성영화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 제작·배급
상영 규모가 작은 영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한국 영화산업 경
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성 영화 제작비를
편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참
가 작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
지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
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는 일반부문과 경기도 특별부문으
로 진행된다. 일반 부문은 장르와 상관없
이 예정돼 있거나 제작 중인 장편 다양성
영화다. 특별부문은 경기도가 주요 소재
이거나 경기도 촬영분량이 70% 이상인



작품이다. 두 부문 모두 순수 제작비가 10
억원 이하인 다양성영화(다큐멘터리 제
외)다. 또 올해 말까지 제작이 완료돼야
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장성군 中企 청년 주거비 지원

장성군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
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1월 2일 기준 만18
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 주
소지가 장성군이고,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
하 근로자이다. 또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
으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강북횡단선, '9호선 지옥철' 막으려면... "경전철 아닌 중전철로"

서울시

"출퇴근시간 혼잡 가능성 있지만 '낮시간 손실'에 콤팩트하게 맞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횡단선이 지옥철 9호선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구축하는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고 21일 밝혔다. 등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된다.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경전철은 수송용량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인 대중교통수단이다. 기존 지하철·전철인 중전철보다 전동차 크기, 무게, 수용 인원이 적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열차가 최대 4량으로 구성돼 수요예측에 실패할 경우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 김모(34) 씨는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을 만들어야 한다. 뉴타운도 있고



대학들에 환승하는 사람까지 수요가 정말 많다"며 "조사 좀 정확하게 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철도망계획 노선별 이용자 수'에 따르면, 강북횡단선은 하루에 21만 300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일 이용객이 27만2749명인 1호선과 맞먹는 수준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수요예측을 해보니 강북횡단선은 1km당 이용객이 1일 8000명 수준으로 나왔다"며 "1만명은 돼야 중전철로 추진한다. 이보

다 낮기 때문에 경전철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하철 9호선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지난 2015년 3월 2단계 구간 개통 당시 혼잡도가 230%까지 치솟으면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9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시는 1년 반만인 2016년 8월 혼잡구간인 가양~신논현 구간만을 운행하는 '셔틀형 급행열차'를 투입했다. 혼잡도는 40% 감소한 190%가 됐다. 160명 정원인 열차 한 량 탑승객이 368명에서 304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정원의 2배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열차에 타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호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 수요예측을 콤팩트하게 한 것"이라며 "강북순환선은 출퇴근 피크 시간대에 혼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춰 수요를 늘려 놓으면 낮에 열차가 비어 손실이 발생한다. 2~4량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호선 열차 혼잡도가 크게 줄지 않자 2017년 12월 6량 열차를 도입했다. 총 4량인 전동차 앞뒤에 각각 1량을 붙여 6량의 열차를 운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

간을 개통했다. 시는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163%에서 147%로 16%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요가 많다면 토목 용역 때 4량 이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전철은 수익성이 떨어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잘못된 수요예측과 잦은 운행 장애로 운영 5년만인 2017년 5월 3676억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총사업비 6752억원을 투입한 용인경전철도 매년 300~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강북순환선 경전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을 최소화하려고 비용대비편익(B/C)이 높게 나온 노선을 선정했다"며 "다른 지방 노선과 경쟁하기 때문에 서울권은 경제성이 높아 예타를 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의 비용대비편익은 0.87로 통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마곡산단에 'M-융합캠퍼스' 조성 착수

서울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수행 내달 12일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모집

서울시가 마곡산단단지내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인 'M-융합캠퍼스' (가칭)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12일까지 건축물 구축계획과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M-융합캠퍼스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M-융합캠퍼스는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구소가 입주할 곳으로 기업·연구소·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

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학융합형 인력을 육성하는 공간이다.

M-융합캠퍼스는 마곡산단단지내 연면적 2만6000㎡, 지하 4층 ~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에는 산·학·연 연구공간과 기술이전센터,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1년 착공해 2024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시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해당 업체는 내달 중 서울시와 용역계약을 체결, 6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윤규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장은 "M-융합캠퍼스 조성사업을 통해 마곡산단단지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지식산업 혁신 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방안 등 산·학·연 연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청년 채용 기업에 연 2400만원 지원

서울시, 93개 청년일자리아사업 선정

서울시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총 93개의 청년일자리아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일자리아 사업은 지역 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지역정책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지원정책 지원형은 지역기업과 단체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후지역 청년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기업 및 단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연 2400만원을 지원한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추가로 1년동안 2400만원을 지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내 식육가공업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마장축



산물 부처스 육성사업' 등이 있다.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은 창업공간을 포함해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들이 지역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2년간 연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등 4차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지원한다.

민간취업 연계형은 공공과 민간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해 일 경험과 다양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1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청년 채용기업에 1인당 최대 연 2250만원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서소문공원 '역사문화공간' 변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공원이 역사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의주2가 16-2일대 서소문공원 도시계획시설 폐지 재상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수요가 감소해 이용이 저조한 서소문공원 주차장(지하 1만 7249㎡)이 사라진다. 시는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에 전시 공간과 집회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소문공원은 조선시대 형장(처형장)으로써 세계 최대 순교성인을 배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역사문화콘텐츠를 담은 서소문역사공원이 조성돼 한국 성지순례길 및 조선 후기 역사성 회복 등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뿌연 미세먼지 속 서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후 서울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빌딩 숲이 뿌연데 보인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µg/m³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연립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후 서울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빌딩 숲이 뿌연데 보인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µg/m³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연립뉴스

인천시 노인분야 예산 26% 늘려 9277억

인천시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진흥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892억원(26%)이 늘어난 9277억원으로 증액해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노인일자리아 급여현실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해 4월부터 기존 월 최대 25만원에서 소득하위 2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약 7만여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신청도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신청을 받았으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시는 노인일자리아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아를 전년 목표 대비 5400여개 늘어난 3만2719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유망 中소 110곳 온라인 판로개척 돕는다

경기도,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경기도가 국내 최대 규모 포털사이트를 통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11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 '경기행복샵' 입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유

통채널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내에 개설한 일종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공동 홍보관'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내 최대 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산업] 제네시스 'G90' 강인하고 안정감 돋보여 명불허전 '회장님차' 06



Life

[라이프] 스타필드 시티위례 오픈 두 달만에 170만명 방문



햇감자로 만든 1등 감자칩... 1분에 100봉지 '바사삭'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48 오리온 '포카칩'

1980년대 한국 제과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날이 갈수록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스낵에서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요구됐다. 당시 국내 스낵 시장은 밀가루를 원료로 한 스낵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오리온은 점차 소비자의 입맛이 고급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고급 스낵인 생감자칩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88년 포카칩을 출시했다.

◆오리온 감자연구소 100% 생감자로 만드는 포카칩은 그 어떤 제품보다도 원재료인 감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감자는 기후변화에 약하고 이동이나 보관 시에도 작은 실수조차 허용치 않는 민감한 원료다. 또한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일반 감자(수미감자)는 모양 자체가 울퉁불퉁 일정치 않고, 기름에 튀겨내면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변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오리온은 '맛있는 감자칩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지난 1988년 강원도 평창에 감자연구소 설립했다. 23만1000㎡(약 7만평)의 땅에 들어선 이 연구소는 감자만을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연구소였다. 감자칩 전용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밤낮없이 실험과 재배에 나선 끝에 2000년 드디어 '두백'이라는 이름의 종자를 개발했다. 국립종자원에도 등록된 '두백'은 한국 토질과 지형에 적합한 감자품종으로, 고형분 함량이 높아 튀겼을 때 더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감자 고유의 색을 잃지 않아 생감자칩 원료로 제격이다.

감자연구소에서는 감자 저장, 선별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입을 하는 감자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품질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 미국 현지 농장에 직접 가서 품질을 검사하는 것은 물론, 노하우 전수를 통해 포카칩에 적절한 감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포카칩 인기비결 포카칩은 경쟁 제품들이 흉내낼 수 없는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감자 본연의 담백한 맛을 그대로 살려내며 생감자 스낵 1등 브랜드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30세대 사이에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안주로 손꼽히며 스포츠 관람, 휴가철 인기 스낵으로도 자리



오리온 감자연구소.



/오리온



자료/ 오리온

감자칩 위해 감자연구소 설립 연구 끝 감자칩 전용 종자 개발 최적의 두께로 최고의 맛 구현

30년간 17억 봉지·1.4조 매출 베트남서 감자스낵 점유율 1위

2030세대 최고의 안주로 손꼽혀 스포츠 경기 관람 간식으로 인기

매김하고 있다. 포카칩의 맛과 식감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두께다. 생감자를 얇게 썰어 튀겨내는 포카칩의 두께는 1.3mm 안팎으로, 감자 속 고형분(전분, 셀룰로오스, 비타민, 단백질 등) 함량에 따라 0.01mm 단위로 두께가 달라진다. 포카칩 연구원들은 해마다 감자 작황에 따른 최적의 두께를 찾아내기 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맛은 물론 식감 등 다양한 조사를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의 두께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최고의 식감과 맛을 구현한다. 오리온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생감자 스낵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하오요우취'(好友趣)가 인기를 끌며 생

감자스낵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7년부터 '오스타'(O' Star)'가 현지 생감자 스낵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햇감자로 만든 포카칩

오리온은 6월부터 그해 갓 수확한 햇감자를 사용해 포카칩을 생산한다. 국산 감자의 수확은 6월부터 11월까지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북부지방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각 지역에서 수확된 감자는 바로 청주공장으로 이동, 생산에 투입돼 포카칩 특유의 신선한 맛을 더해준다. 오리온은 2018년 국내 500여 감자농가와 계약을 맺고 약 2만t의 감자를 사용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가상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출시 30주년을 맞은 '포카칩'은 국내 누적매출액 1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1988년 7월 첫 출시 때부터 2018년 6월까지 30년간 소비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 속에 세운 기록으로, 판매 개수로 환산 시 약 17억 봉지에 달한다. 30년 동안 1분에 100봉 이상씩 팔린 셈이다. 그 동안 사용한 감자의 개수는 약 22억개에 달하며, 이는 10t 트럭 4만 대 분량에 해당한다.

◆착한포장 프로젝트

오리온은 제과업계의 과대 포장에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제품의 포장재 크기와 잉크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제품의 양을 늘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지속해오고 있다. 포카칩은 그 대표 제품으로 큰 부피에 비해 내용물이 적어 보인다는 '질소과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장 내 빈 공간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왔다.

사실 스낵 제품 내 질소중량은 과자의 신선도 유지와 파손 방지를 위한 필수요소다. 국내에서 가장 얇은 두께로 생산되는 포카칩을 최소한의 질소중량으로도 부서지지 않으면서 양을 늘려 담는 것은 획기적인 기술 혁신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이를 위해 오리온은 균일한 크기의 감자를 선별해내고, 포장 기계의 진동 횟수를 늘리는 등 생산공정을 개선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 제품 내 빈 공간 비율을 환경부에서 정한 '봉투 포장 과자류'에 허용되는 35%보다 훨씬 낮은 25%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또한 오리온은 지난 2015년 9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격 변동 없이 포카칩의 양을 10% 늘렸다. 기존 60g 규격은 66g으로, 124g 규격은 137g으로 각각 증량하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짹수해에 잘나가는 이유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짹수해 매출과 흡수해 매출을 비교해본 결과 짹수해 매출이 약 7%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오리온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월드컵, 올림픽 등 짹수해마다 펼쳐지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꼽고 있다. 포카칩이 집에서 TV로 대표팀 경기를 시청하거나 단체응원 등을 펼칠 때 먹는 맥주 안주, 간식 등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카칩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2016년 8월), 브라질월드컵(2014년 6~7월), 런던올림픽(2012년 8월), 남아공월드컵(2010년 6~7월), 베이징 올림픽(8월) 기간 동안 큰 폭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그 해 최고 월간 판매량을 올렸다. 평창동계 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에도 비교적 감자스낵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매출이 늘었다.

오리온 관계자는 "포카칩은 17년간 감자 스낵 시장 1위를 지켜오고 있는 국민과자로 오리온의 30년 감자 노하우를 모두 담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감자스낵 제조 기술과 원료 통합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오리온 감자스낵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